

# 은혜교리

## 13 lessons on GRACE

잭 카트렐 저, 조동호 역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

---

# 13 LESSONS ON GRACE

Written by Jack Cottrell  
Wipf and Stock Publishers:  
150 West Broadway, Eugene OR 97401  
1999

Translated by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1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 저자 소개



잭 카트렐(Jack W. Cottrell) 박사는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 (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 신학대학원 (Cincinnati Bible Seminary)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번역자의 스승이다. 번역자는 1983년 가을학기부터 1987년 봄 학기까지 카트렐 박사 밑에서 만 4년 동안 수학하였다.

카트렐 박사는 켄터키 주에서 태어나 스탬핑 그라운드(Stamping Ground)에서 성장하였다.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BA, ThB, 신시내티 대학교 (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BA,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M.Div.,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Ph.D.를 받았다.

교수로 재직한 1967년 이후 20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저서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 Faith Once For All
- Power From On High
- Headship, Submission & the Bible: Gender Roles in the Home
- Baptism - A Biblical Study
- 13 Lessons on Grace
- Gender Roles and the Bible
- Tough Questions, Biblical Answers VOLUME 1
- Tough Questions, Biblical Answers VOLUME 2
- God the Creator (Vol 1)

- God the Ruler (Vol 2)
- God the Redeemer (Vol 3)
- Commentary on Romans
- Holy Spirit
- SOLID: The Authority of God's Word
- HIS TRUTH
- Faith's Fundamentals
- Bible Prophecy and the End Times CD
- Bible Prophecy & End Times Leader's Guide

본서는 카트렐 박사가 신시내티 신학대학원에서 수십 년간 강의한, 역자가 수강한바 있는, <은혜교리, Doctrine of Grace> 세미나과목을 근거로 저술되었다.

2011년 11월 10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 차례

저자 소개 .....	3
차례 .....	5
성구 자료들 .....	8
서론: 구원의 교리들 .....	9

### 제1장 100% 무죄/11

1. 믿음이란 무엇인가? .....	11
A. 믿음은 동의이다. ....	11
B. 믿음은 신뢰이다. ....	13
2. 의롭다하심(稱義)이란 무엇인가? .....	15
A. 법적 선언 .....	15
B. 침례를 통하여 주어짐 .....	16
C. 100% 무죄 .....	17

### 제2장 공정성보다 큰 은혜/19

1. 율법의 길 .....	20
2. 은혜의 길 .....	21
3. 은혜의 상속자들 .....	23
4. 은혜 아래서의 삶 .....	25

### 제3장 자유권/27

1. 거짓 자유들 .....	27
A. 절대자유 .....	27
B. 불복종할 자유 .....	28
2.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	30
A. 유죄판결로부터의 자유 .....	30
B. 율법준수의존으로부터의 자유 .....	31
C. 율법주의의 동기로부터의 자유 .....	32

3. 선행: 그것들은 무엇인가? ..... 33

#### 제4장 자유의 상징/35

1. 신자들의 가족 ..... 35

2. 사랑으로 섬김 ..... 36

    A. 영적인 봉사 ..... 36

    B. 자선 행위 ..... 37

3. 사심 없는 봉사의 근거 ..... 38

    A. 성도들의 공동체 ..... 39

    B. 섬김의 보상 ..... 41

#### 제5장 이중 문제/43

1. 죄는 우리를 유죄로 만든다 ..... 44

    A. 법적인 문제 ..... 44

    B. 하나님의 진노 ..... 45

2.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 .... 46

    A. 죄성 ..... 46

    B. 죄들과 죄 많음 ..... 48

3. 이중 문제 ..... 49

#### 제6장 쉽지 않은 길/51

1. 화목제물 ..... 51

    A.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 52

    B.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 53

    C.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 55

2. 의롭다하심(칭의) ..... 56

3. 화목 ..... 57

#### 제7장 이중 치료/59

1. 새 생명은 무엇인가? ..... 60

2. 언제 새 생명을 받는다? ..... 63

3. 새 생명의 목적 ..... 66

#### 제8장 오직 시작일 뿐/67

1. 변화의 필요 .....	67
A. 지식의 성장 .....	68
B. 태도의 성장 .....	69
C. 선행의 성장 .....	70
2. 변화의 소망 .....	70
3. 변화의 자유 .....	71
A. 성령님의 임재 .....	72
B. 성령님의 능력 .....	73

### 제9장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75

1. 확신과 예정 .....	76
2. 확신과 경험 .....	78
3. 확신과 선행들 .....	79
4.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들 .....	80

### 제10장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가?/85

1. 이스라엘의 구별 .....	85
A. 이스라엘의 목적 .....	86
B. 이스라엘의 준비 .....	86
C. 이스라엘의 특권 .....	87
2. 이스라엘의 거절 .....	87
A. 이방인들의 덧붙음 .....	88
B. 유대인들의 불신앙 .....	89
3. 새 이스라엘: 누구든지 원한다면 .....	90
A. 유대인들을 위한 한 계획 .....	90
B. 모두를 위한 자비 .....	92

### 제11장 자비: 실천의 은혜/93

1. 불행에 자극받는 자비 .....	94
2. 용서가 자유로운 자비 .....	96
3. 공의를 넘어서는 너그러운 자비 .....	98
4. 하나님에 이끌린 자비 .....	99

### 제12장 돌을 던지지 말라/101

1. 사랑은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	102
A. 약함 혹은 강함? .....	102
B. 자유 혹은 사랑? .....	103
C. 판단 혹은 수용 .....	105
2.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	105
3.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첫 번째에 놓는다. ....	106

### 제13장 빛을 쬐습니다/109

1. 우리 피조물들은 빛진 자들이다. ....	110
2. 우리 죄인들은 빛진 자들이다. ....	111
3.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진 자들이다. ....	113

### 성구 자료들

제 1장 - 갈라디아서 2:15,16; 3:1-14
제 2장 - 갈라디아서 3:23-4:7
제 3장 - 갈라디아서 4:8-11; 5:1-10
제 4장 - 갈라디아서 5:13-15, 25-6:10
제 5장 - 로마서 1:28-2:11
제 6장 - 로마서 5:1-11
제 7장 - 로마서 6:12-23
제 8장 - 로마서 7:14-8:2
제 9장 - 로마서 8:28, 37-39
제10장 - 로마서 10:5-13; 11:33-36
제11장 - 로마서 12:3-18
제12장 - 로마서 14:10-23
제13장 - 로마서 1:16; 15:8-21

## 서론: 구원의 교리들

본서에서 각 장(章)들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선별된 구절들에 근거하고 있다. 각 장(章)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 율법과 은혜, 그리스도인의 자유, 화목, 거듭남, 구원의 확신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다.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흥미로운 주제들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칭의(稱義), 화목제물, 중생과 같은 용어들에 흠칫 놀란다. 이것은 불행이며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이유는 약간의 노력을 연구에 쏟는 것만으로도 그 주제들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불행인 이유는 (한 저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성경교리의 보석들”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로부터 커다란 기쁨과 유익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교리의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이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모든 것이라면, 두 페이지 분량의 계시만으로도 충분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샘들은 더 깊고, 그 광산들은 훨씬 더 풍성하다. 우리는 그것들 속으로 뛰어 들어야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죄의 유죄와 죄의 부패의 차이를, 화목제물(propitiation)과 구속과 화목의 차이를, 칭의(稱義)와 중생의 차이를 배워야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가장 크게 필요한 것들 중의 한 가지

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 나 자신의 신념이다. 결과적으로 책 전반에 걸쳐서 은혜의 주제를 담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科)의 주제들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시도가 고르게 성공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개개인들이나 스터디 그룹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주제를 더욱 연구하고픈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 제1장 100% 무죄

“하나님께 의롭게 처신하라!”

우리는 이따금씩 시골 고속도로변에 세워진 표지판들에서 이 훈계를 맞닥뜨린다. 그것이 실제로 나쁜 충고는 아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충고이다. 무엇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이슈에 대해서 말한다. 복음 즉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

본 장(章)에서 우리의 목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 1. 믿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의 성격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다.

#### A. 믿음은 동의이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종종 동의(同意)로 불린다. 동의는 지적인 판단이며, 어떤 것이 진실하다는 믿음이다. 그것은 어떤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마음의 판단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받는다. “나는 조지 워싱턴이 정말로 델라웨어(Delaware) 강을 건넜다고 믿는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우리는 실제로 주유소 직원에게 “나는 당신이 내 기름 탱크에 넣고 있는 것이 정말로 휘발유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백화점이 “우리는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고, 신용등급이 높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같은 어떤 명제에 이런 동의를 하게 만드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약에 증거가 충분하다면, 우리는 무언가가 진실하다고 믿는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포함해서 역사적인 기록들은 워싱턴이 정말로 델라웨어 강을 건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다. 보기에나 냄새로나 휘발유와 같고, 휘발유이외에는 아무 것도 그 펌프에서 나온 일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주유펌프에서 나오는 맑은 액체는 휘발유라고 우리는 믿는다.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용이행도 좋다는 증거를 확보했을 때에만 신용카드를 발행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즉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와 같은 동의를 포함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베다니의 마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 11:27). 사도 바울은 만약 네가 “하나님께서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롬 10:9)고 덧붙인다.

이것들은 단지 우리가 진실하다고 믿는 몇몇 진술들에 불과하다. 왜 우리는 그것들을 믿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동의하게 만드는가? 증거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자신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에서 근본적인 증거를 제공하셨다(막 2:1-12; 요 2:11을 보라). 그분 자신의 부활은 절정의 증거였다(롬 1:4).

목격자들은 우리에게 이들 기적적인 표적들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요 20:30-31).

따라서 믿음은 무엇보다도 이들 대단한 주장들을 진실하다고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성자를 주셨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침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과 기타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주장들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실하다고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는가? 이런 진술들의 진리를 단지 수용하는 것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겠는가? 답은 아니요 이다.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이런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약 2:19, 막 1:24).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 증거를 단지 수용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 B. 믿음은 신뢰이다.

이런 사실이 우리를 믿음의 두 번째 요소 즉 신뢰에로 이끈다. 신뢰는 지적인 판단 그 이상이다. 그것은 혼신의 헌신에 관련한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굴복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혹은 무엇인가 당신의 권한에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의 통제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신뢰(confidence)하는 태도이다.

신뢰에 관한 하나의 일상적인 실례는 당신의 아이들을 돌볼 베이비시터를 채용하는 것이다. 베이비시터를 채용함에 있어서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

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또 다른 하나의 실례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는 것이다. 당신은 생명과 건강을 그의 돌봄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의사,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이것이 동의와 신뢰의 차이이다. 동의는 어떤 진술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신뢰는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확실히 신뢰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요 3:16과 행 16:31을 보시오). 그것은 당신의 전 삶을 예수님과 그분의 방법에 맡긴다는 결정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그분의 손에 위탁하는 것이다(딤후 1:12).

동 의와 신뢰의 차이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예화는 수십 년 전 공연된 프랑스인 줄타기 곡예사 이야기이다. 어느 날 그가 나이가 가라 폭포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온갖 종류의 비범하고 아슬아슬한 묘기들을 보이면서 계곡을 가로지르는 외줄 위를 걸었다.

마침내 그는 그 줄 위에서 외바퀴 수레를 밀었다. 그는 안전한 육지로 돌아와서는 낮을 잃고 그를 바라보고 있던 한 어린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 곡예사는 그 소년에게 분명히 영웅이었다. 그래서 그는 소년에게 물었다. “애야, 너는 내가 이 줄을 꽤 잘 탄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넌 아마 내가 이 줄 위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거야, 그렇지 않니?”

“예,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너는 내가 이 외바퀴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줄 위에서 건너편으로 밀고 갈 수 있다고 믿니?”

“예, 정말로 믿습니다.!”

“좋아, 그럼 올라 타거라!”

그러나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동의를 표시했던 그 소년은 그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신뢰를 분발시킬 수 없었다. 그는 자

기 자신을 곡예사의 손에 맡기기를 거부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동의와 신뢰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침례 안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행 2:38).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그분을 신뢰한다. 이 지속된 신뢰와 헌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

## 2. 의롭다하심(稱義)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의롭다하심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만 한다. 죄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요일 3:4).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그릇되고 처참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법 앞에서 유죄가 되며, 그것의 벌과 유죄선고 아래에서 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분노로 바꾼다. 만약 우리가 이런 유죄관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했고(롬 3:23), 그래서 유죄와 저주아래서 지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이 유죄를 없애고, 한 번 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바른 관계를 맺게 할 무슨 방법이 없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될” 수 있는가?

### A. 법적 선언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법적

용어이며, 판사에 의해서 법정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말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죄”로 선고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 그대로 우리가 유죄하고 죄가 있다고 보시면서도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면제하신다. 그분은 그 유죄를 멀리 가져가 버리신다. 그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벌과 저주를 치워버리신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거슬리는 우리의 죄들을 갖고 계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분노를 거두시게 하며,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를 보류하시게 하는가? 오직 한가지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충분한 형벌을 이미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 3:13).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육체와 영혼 안에서 모든 죄인 때문에 영벌(永罰)을 받고 계셨다.

## B. 침례를 통하여 주어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 형벌에서 구원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진실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롬 5:9), 오직 우리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을”(롬 3:25) 때에만 그렇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분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진실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는 믿음이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

는 순간 의롭게 되지는 않는다. 그 같은 견해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견지하는 것이지만, 아주 심각한 잘못이다. 그것은 수단과 시간을 혼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의롭다하심(稱義)의 수단이지만, 성경에 따르면, 침례는 의롭다하심이 주어지는 시간(때)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침례(Christian baptism)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주시기로, 또 그 순간에 죄 사함을 위해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로 약속하셨다(행 2:38, 롬 6:4-6, 골 2:12, 갈 3:27).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분을 만날 것이며 의롭게 될 것이다.

### C. 100% 무죄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즉시로 완벽하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등급에 따라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시기에 당신에게 “무죄”라고 선언하실 때, 그 순간부터 당신이 100퍼센트 무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의미하신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 인생에서 침례로 시작하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 심판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의롭게 되며, 지금 의롭게 된 사람들처럼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처럼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게 하는 믿음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죄함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며, 그것이 우리의 죄들을 덮고 그 형벌을 흡수해 버림을 신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며, “복 받은 확신”을 갖는다.

의롭다하심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백지 위에 다 파란색 또는 검정색 잉크로 사람모양의 윤곽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 빨강색 잉크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죄명들을 써넣어서 지저분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이다.) 끝으로 투명한 빨강색 셀로판지나 플라스틱을 그 그림 전체 위에 덮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죄명들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처음 그린 사람모양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하심을 입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옮겨졌으며, 그 피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롭다하심”(以信稱義)은 좋은 소식이며, 복음의 바로 그 핵심이라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더욱 더 놀란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평화로운 확신 속에서 더욱 더 안식(安息)을 누린다.

다음 장에서는 이 위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통찰해보려고 한다.

## 제2장 공정성보다 큰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왜 이것이 그렇게도 좋은 소식인가? 무엇이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가 그것을 대안과 단지 비교만 해도 우리는 이 물음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하심(以信稱義)의 대안은 행위에 의한 의롭다하심이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상실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갈 2:16, 롬 3:28, 엡 2:8-10을 보라.)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논할 때 (1:16-17을 보라), 그의 주된 관심은 죄와 구원의 차이점이 아니다. 그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구원의 두 가지 가능한 방법들, 즉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와 '율법을 인하여 행위로 말미암아'를 대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러나 바울의 요점은 이 길들 중의 하나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철저히 영원히 막혀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노력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의 의로움이나 율법준수로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로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비롭게도 다른 루트, 즉 믿음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참 길이며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다.

이 장(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 가능한 구원의 길들의 차이점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들은 율법과 은혜로 불릴는지 모른다.

## 1. 율법의 길

성경은 율법과 은혜의 두 체제를 서로에 대한 날카로운 대조 안에 놓는다. 요한은 우리 주님께 대해서 말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6-17). 바울은 경고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갈 5:4).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말한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 6:14).

“법 아래에”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처하는 상태를 기술하는 구절이다. 하나님은 “법과 질서”의 신이시다. 그분은 우주를 자연법칙에 따라 운행되도록 만드셨고, 사람들도 도덕법칙에 따라 살도록 만드셨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는 이미 율법의 틀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일단 도덕의식이 발전하면, 사람은, 일반(자연)계시(롬 1:18-32, 2:14-15)나 특별(성경)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도덕법에 직면한다.

만약에 사람이 율법체제나 틀 안에 남는다면, 그는 심판 날에 율법규정들과 어구들에 따라서 판결 받을 것이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특정한 율법들은 어느 정도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규정들로 된 율법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이들 규정들은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게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형벌을 면하라. 율법을 범하라. 그리고 형벌을 받으라.”

이것이 율법이 작용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한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규정들이란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게 그다지 나쁘지는 않는데 라고 당신은 말할는지 모른다. 결국 이 체제 아래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언하셔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 만약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문제는 단 한 개의 죄가 우리를 율법을 범한 자로 만들며,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야고보가 말하듯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약 2:10. 갈 3:10을 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시작하는 곳인)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제 끔찍한 소식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롬 3:23)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머무는 한, 우리는 상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되는 선함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죄를 지었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 2.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신할 대안, 즉 구원 받을 또 다른 길을 마련하셨다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틀림없이 이 지점이다. 그것은 은혜의 길이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체제이며, 완전히 다른 일련의 근거규정들에 따라서 작용한다. 은혜 아래서 사람은 다음의 간단한 진술에 따라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다가간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나 형벌을 받으라. 율법을 범하라. 그러

나 형벌을 면하라.”

할렐루야! 은혜 아래에서, 범법자(죄인)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들 진술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요? 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하고, 범법자는 형벌을 면해야 하죠? 이걸 정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라고 당신은 말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것은 공정하지가 않다. 그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것이 공정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이다! 율법은 공정하다. 은혜는 공정성 이상의 것이다.

“좋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나는 그 체제의 두 번째 부분 즉 ‘율법을 범하라. 그러나 형벌을 면하라.’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하지만 ‘율법을 지켜라. 그러나 형벌을 받으라.’는 그 첫 번째 규정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걸 분명히 정도를 벗어났는데요. 그게 어떻게 은혜일 수 있지요? 도대체 누가 그것에 동의하겠어요?”라고 당신은 말한다.

일리가 있다. 이것은 아주 요상하고, 심지어는 반대할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억하라. 은혜는 우리의 보통의 사고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것은 율법과 정의와 공정성의 틀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라. 그러나 형벌을 받으라.”는 진술에 대해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은혜가 되게 하는 은혜의 바로 그 요소이다. 이 명문이 없다면, 다른 명문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누구에게 이 명문이 적용되는가? 도대체 누가 율법을 지켰는가? 오직 한분, 죄 없으신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다. 왜 그러셨는가?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였다! 오로지 은혜의 요구들만이 우리의 흠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 없으신 죽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고, 그래서 실제적 범법자들인 우리가 형벌을 면할 수 있

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은혜의 체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의해서 완전하게 요약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취급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대우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선택이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남아서 어떤 정죄에 이를 수 있고, 혹은 값없이 제공되는 은혜를 수용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롬 8:17). 이 복 받은 대안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 3. 은혜의 상속자들

한 가지 것은 분명해져야 한다. 율법과 은혜를 구분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율법에 관하여 여기서 언급된 것은 시대에 상관없이 주어진 모든 형태의 하나님의 율법을 말한다. 모세의 율법이 그 첫 번째 예이다. 아무도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계명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도 신약성경시대에서 율법, 심지어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조차도,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못한다. 일단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떠한 형태의 율법도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율법이 “범법함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어졌다고 말한다(갈 3:19). 이것은 율법이 인간의 죄지을 성질(罪性)을 통제하도록 돕기 위하여,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고

말한다(롬 3:20). 따라서 율법은 구원의 유일한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교사이거나 가정교사가 된다(갈 3:24). 율법 그 자체는 결코 구원의 수단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갈 3:21).

이것은 구약성경의 성도들이 우리와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에 대한 신약성경의 훌륭한 본보기이다. 바울은 자신의 주요한 요점, 즉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롬 3:28)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인용한다.

구원과 영생의 충만한 복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주어졌고, 그를 통하여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창 12:3, 갈 3:8).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았는가? 그 밖에 구약성경시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았는가? 신약성경시대에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바울은 그 기업이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갈 3:18)에 의지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을 받았다(롬 4:13을 보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창 15:6, 이 구절은 롬 4:3과 갈 3:6에서 인용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 은혜의 기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누가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하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롬 4:11).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6-29).

#### 4. 은혜 아래서의 삶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다. 우리는 운명이 분명한 율법 아래 계속남아 있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다. 그 결정은 틀림없이 어렵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육지에서 천마일 떨어진 곳에서 배가 난파되고 한 대의 수상비행기가 그의 곁에 착륙한다면, 그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그는 해안까지 수영을 해볼 수가 있고, 혹은 비행기에 오를 수도 있다. 그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잠깐이라도 주저하겠는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분별력 있고 생명을 주는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물음은 이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자애로운 말씀대로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죄를 지속적으로 덮는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면서, 그의 완성된 사역위에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매일의 율법준수에 실제로 의존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행과 순종의 행위들을 실제로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처럼 아직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슬픈가(눅 18:9-14)!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 바리새인은 “제가 당신의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 자신을 점검해보라. 이것이 당신의 태도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적인 면에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은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한 그리스도인은 같은 비유에 나오는 세리와 같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는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자비

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고 말할 것이다. 결국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연약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자.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킬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킬 그분의 능력에 의존한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기를 참으로 시작할 수 있다.

## 제3장 자유권

자유!

자유하기를 바라는 욕망보다 인간의 마음에서 더 크게 불타는 욕망은 없다. 그렇지만 많은 종류의 자유가 있다. 어떤 것들은 죄스럽고 파괴적이며, 어떤 것들은 선하고 본질적이다.

모든 것 중에서 최상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로써 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바울은 덧붙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갈 5:1).

이번 장(章)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以信稱義)의 복음진리에 근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 1. 거짓 자유들

우리시대의 자유에 관한 큰 강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립되는 방식에서 자유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이것들 중에서 최악은 절대자율의 추구이다(즉, 자기결정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포함해서 모든 외부적인 권위로부터 자유하려는 욕망이다. 여기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들을 세우며, 그가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되는 권리를 요구한다.

#### A. 절대자유

이것은 사단이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브를 꼬드겼던 그런 종류의 자유이다(창 3:1ff). 이것은 펄시콜라가 다음과 같은 노랫소리로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이다.

사방에 어떤 느낌이 있다.  
그것은 미국의 소리이다,  
펄시인들: 자유로운 느낌!  
새 길을 택할 자유로운 느낌,  
너는 너, 나는 나일 거라고  
일어서 말할 자유로운 느낌.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도록 의도한 종류의 자유라고 자신들에게 확신시켜왔다. 결국 그분은 우리를 자유로운 도덕적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는 데 자유롭다는 것을 오직 의미한다. 하나님 한분만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계시다.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데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그는 거짓 자유의 환영(幻影)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 자유는 진실로 잘못되고 파괴적이다. 그것은 정말로 전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정말로 해방할 수 있다는 개념, 즉 거짓 개념의 속박이다. 그런 사이비 자유는 지옥에 떨어질 영원한 유죄판결로 인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 죄스런 자율을 틀림없이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조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성격에 관하여 약간의 심각한 오해들이 있다.

## **B. 불복종할 자유**

한 가지 거짓 개념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들에 복종할 의무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써

이것은 순수한 도덕률 폐기론을 낳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율법들에도 복종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가르쳐왔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이름으로 모든, 즉 모든 종류의 부끄러운 행동을 옹호해왔거나 허용해왔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물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거짓된 개념이다. (본서의 7-8장을 보시오).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 가장(假裝)한 그런 방종을 바르게 거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좀 더 미묘한 방종, 즉 절반 자유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자비 정의와 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서 신실하다면, 우리가 더 작은 의무들과 더 사소한 규정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회사의 임금대장을 결코 훔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쓸 목적으로 회사의 스크루드라이버 한 개나 종이클립 한 갑을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는 주의 만찬에 빠질 생각을 결코 하지 않겠지만, 주차법률들과 속도법률들을, 만약 그 같은 것들이 불편하다면, 복종할 어떤 의무감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런 사소한 것들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규정들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은가?

율법의 사소한 것들에 그들의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율법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을 무시한”(마 23:23)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 정죄하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이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사람은 작고 큰 의무들 모두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즉시 보이신다. “너희들은 전자를 게을리함이 없이 후자도 실천했어야 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마 23:23).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규정들에서 자유롭

지 않다. 일시정지 표시들, 저작권법들, 세법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은 따라야한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복종이다. 율법주의는 율법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되기 위해서 율법준수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거짓된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단순히 구약율법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초점으로 삼는다면, 그는 십중팔구 율법에서의 자유가 갖는 실제적인 요점을 놓치게 될 것이다.

## 2.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속에 핵심 요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오해받아서 안 된다. 우리가 위에서 진술한 것처럼, 그것은 율법에 복종할 의무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구약형식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자유는 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 A. 유죄판결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몇 가지 면에서 율법으로부터 정말 자유하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유죄판결로부터 자유하다.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2장을 보시오) 율법을 깬 결과, 이를테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죄인(우리들 모두)은 율법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유죄판결 아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는 이 진술은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

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갈 3:13). 이 위대한 자유가 다음의 찬송가에서 표현되고 있다.

율법에서 자유롭다. 오, 행복한 상태,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 거기에 죄 사함이 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쓰러져 상처를 입으셨다.  
 은혜가 우리를 단번에 구속하였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 - 어떤 정죄도 없다,  
 예수께서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다.  
 “내게로 오라,” 오 그분의 부드러운 부르심을 들으라.  
 오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다.

## B. 율법준수의존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의롭다하심의 수단으로써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율법의 대안으로써 은혜의 방법을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는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자신의 나날의 복종이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나 절망의 희생물이다. 만약에 자기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충분히 선하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진짜로 율법주의자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르게 유지하려고 자신의 율법준수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다.

반면에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선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는 아직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복음의 영광(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은 그것이 자기기만과 좌절

모두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됨의 수단으로써의 율법(즉, 율법준수)으로부터 자유롭다. 로마서 10장 4절은 말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KJV).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할 수 없지만, 그것을 또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 C. 율법주의의 동기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최종적인 측면은 우리들에게 복종하도록 - 그러지 않았다간 혼난다. - 강요하는 엄한 주인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하고 싶기 때문에 율법에 복종할 수 있다. 환언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종에 대한 율법주의의 동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위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종종 큰 노력을 요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멩에를 메는 것으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수하는 것으로, 전투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밖에 지루한 운동으로써 기술한다.

왜 누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는 선행을 견인(堅忍)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를 주는가?

율법 아래서 생활할 때 사람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보상에 대한 갈망이란 두 가지 동기들에 의해서 쫓긴다. 모든 것이 개인적인 복종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복종해야만 하거나 보상을 얻기 위해서 복종해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에게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들을 실제로는 싫어할 테지만, 마치 무뚝뚝한 노예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피하려고 그것들을 행한다.

그 같은 동기는 자기중심적이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고 묻는다. 그것은 돈을 보고하는 결혼과 같다. 그렇게 동기화된 사람은 구세주보다는 오히려 구원을 사랑한다.

선행에 대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감사가 담긴 사랑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요 14:15).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에 자극된 수고”이다(살전 1:3). 문제가 되는 단 한 가지 것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KJV)뿐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것 전부를 요약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람은 믿음 즉 역사하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왜~~ 그것은 역사하는가? 사랑 때문에 즉 가장 강한 가능한 동기, 사심이 전혀 없는 동기, 그리스도 중심과 이웃 중심의 동기 때문이다.

요점은 은혜와 은혜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여 오로지 사랑으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분께서 지불하신 것에다 우리가 덧붙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은혜 아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롬 3:28). 그러므로 우리의 의롭다하심(稱義)이 믿음으로 보증된다면, 우리는 사심이 없고 감사가 넘치는 사랑으로 행하고 복종하는데 자유롭다.

### 3. 선행: 그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종행위의 성격을 이해하기에 이르면,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한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권고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종의 지불이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 구세주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표시하는 방법이다.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행위로부터 해방시키지 않고, 행위에 대한 거짓 견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하심(以信稱義)이 행위

로 획득된다는 어리석은 추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구원하고, 고치며, 그리고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행위가 없을 수도 없고, 없어서도 안 되지만, 의로움이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Christian Liberty*, Fortress Press, 1967, pp. 35-36).

## 제4장 자유의 상징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 NAS).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유죄판결과 율법의 강요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지 무언가로 *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자유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자유롭다.

이 장(章)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도록하기 위해 해방시켰는가와 어떻게 이 섬김이 제공되어야 마땅한가를 살펴볼 것이다.

### 1. 신자들의 가족

성경은 교회를 한 가족이나 한 형제의 관계로 기술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교회를 “믿음의 가정”(신자들의 가족)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은 말한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 하라고 권면한다(벰전 2:17).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고후 6:18), 서로에게 형제자매이다(갈 5:13, 문 2).

마치 어떤 가족들이 문장들이나 다른 독특하고 식별되는 상징들(예: 스코틀랜드 고지 사람들이 왼쪽 어깨에 걸치는 격자무늬의 나사)을 개발한 것처럼, 신자들의 가족도 식별되는 모양이나 “상표,” 말하자면 형제사랑을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교우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사랑은 특별한 종류의 사랑, 즉 가족 사랑이다. “형제로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은 권면한다(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시오). 로마서 12장 10절은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사용된 말은 그리스도인 사랑에 대한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발견되는 그 다정한 애정을 말하는 단어이다.

## 2. 사랑으로 섬김

사랑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에든지, 그것은 그 자체를 능동적인 섬김으로 표현한다. 사랑은 수동적일 수 없다. 요한은 묻는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7-18).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갈 5:13).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을 도울 때 드러난다(히 6:10).

긴급을 요하는 사례들에서 우리는 차별 없이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누가복음 10장 29-37절을 보시오).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적인 책임은 우리의 교우들을 돕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진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

### A. 영적인 봉사

우리는 흔히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섬

김은 영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할 때 그가 마음에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이다. 그는 형제가 끈질긴 죄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에 관하여 방금 이야기하고 있었다(1절). 그 같은 형제가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고후 2:7).

피차 짐을 져야할 필요와 책임은 빈번히 쓰인 성구들, 즉 “(여럿이) 서로”(one another) 또는 “(둘이) 서로”(each other)에서 드러난다. 다음의 목록을 고려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히 3:1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살전 5:11).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약 5:16).

“서로 대접하기를....”(벧전 4:9).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골 3:16).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고전 12:25).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KJV).

상호 섬김에 관한 이 강조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석조아치에 비교하게 하는데, 아치에서 개개의 돌은 다른 돌들을 지탱한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압도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영적인 후원이다.

## B. 자선 행위

사랑은 또한 형제의 물질적인 필요를 고려한다. 이것은 자선의 영역이다.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우 소수의 교회들만이 계획된 자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상한 이유는 신약성경에서 언급된 교회에서 거둔 헌금의 주된 용도가 자선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초

기 그리스도인들은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다(행 2:44-45, 4:32-37).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그들의 헌금에 관해서 지시할 때(고전 16:2, 고후 8-9장), 그는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집하는 헌금을 말하고 있었다.

부유한 자들과(딤후 6:18)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기여하는” 신령한 은사들을 받은 자들은(롬 12:8) 다른 사람들을 도울 특별한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비록 그것을 수고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한다”(행 20:35). 개인적인 사랑의 섬김의 좋은 사례는 도르카(Dorcas)이다. “그녀는 항상 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행 9:36-39).

심지어 복지국가사회에서조차 교회들과 개인들이 자선을 통하여 형제사랑을 표시할 수많은 필요들과 기회들이 여전하다. 미국과 해외에 우리의 후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기독교 보육원들, 양로원들, 진료소들과 병원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소속한 교회들 안에는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교인들이 자주 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 교인들의 가족을 향한 것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 가족 가운데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필요들이 있는 한은, 이것들이 비 교회기구나 교파교회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요청들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3. 사심 없는 봉사의 근거

“스미스 형제와 그의 가족이 이제방금 화재로 집과 소유물을 잃었습니다.”고 설교자가 알린다. “우리는 헌금접시를 돌려서 그들을 위해 특별헌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접시에

10달러짜리 지폐를 놓는다.

“존스 형제는 실직했고, 그의 어린 딸이 심히 앓아왔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더 이어진다. “헌금접시가 지나갈 때 가능한 한 아무쪼록 후하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5달러짜리 지폐를 놓는다.

“브라운 자매가 지난봄에 쓰러진 이후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녀에게 누군가 그녀의 집에 가서 청소를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원자가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손을 든다.

그 일들이 행해지고,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다. 참된 섬김이 주어졌다. 그러나 무엇이 그 동기였는가? 선행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구제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지 않는가?

## A. 성도들의 공동체

섬김을 위한 이들 두 가지 기초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communio sanctorum*(성인들의 공동체)<sup>1)</sup>로서의 교회에 대한 고대 라틴어 용어를 간략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것을 “성인들의 잉여공덕들의 나눔”을 뜻하는 것으로써 설명하였다. 성인들은 매우 선하고 의로운 소수의 사람들로서 그들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선행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행하였던 자들이다. 따라서 잉여공덕들은 다른 사람들이 끌어다 쓸 수 있는 “공덕 창고”에 저장되었다.

마르틴 루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communio sanctorum*에 대한 이 해석을 올바르게 공격하였다. 첫째, 누군가를 구원하는 유일한 공덕들은 예수님의 것들뿐이다. 어떠한 죄인도, 다른 사

1) [역자 주] 영어 ‘saint’나 라틴어 *sanctorum*은 개신교에서 ‘성자’ 또는 ‘성도’라는 뜻으로 쓰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인’을 뜻하는 말로써 일반 성도를 뜻하지 않고, 순교자나 사도들과 같은 특별한 인물들로서 교황청이 성인으로 시성한 자들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도 가톨릭교회의 개념인 경우에는 ‘성인’으로, 개신교 개념인 경우에는 ‘성도’로 번역하였다.

람들과 함께 나눌 잉여공덕들을 쌓기는 고사하고,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공덕조차 쌓을 수 없다.

둘째, 루터는 말하기를 이런 해석은 교인들을 본질상 이기적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사람은 단지 그가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서 교회의 일부분이 된다. 만약 당신이 구원이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자신의 선행조차도 당신을 단지 유익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루터는 주장하기를 교회는 *communio sanctorum*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공동체”는 나눔과 살아 있는 섬김의 공동체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이다. 교회 회원권은 선행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일을 이런 빛에서 보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하심(以信稱義)이 그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잉여 공덕”을 흥정하면서 또는 우리 자신의 공덕의 비축량을 늘리면서 허둥거리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은 자기 추구하고 공덕을 쌓기 위한 섬김을 사심 없고, 이웃 중심의 섬김으로 대치시킨다. 루터의 견해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폴 알트하우스(Paul Althaus)는 그 점을 잘 말하고 있다.

루터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한 의롭다하심의 복음만이 참된 공동체를 정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복음에서의 믿음은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놓으며, 모든 행동을 결정해왔던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그 이기적인 관심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그를 해방시켜 자기 형제들을 활동적으로 섬기게 한다(*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 303).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질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제 완전히 자유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며, 그의 형제 섬기는 것을 감수한다(*Ibid*, p. 308).

## B. 섬김의 보상

비록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는 선물이지만, 또 비록 우리의 섬김이 사심 없는 사랑에서 유발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들은 하나님 자신의 제한이 없는 자비심에 의해서 보상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히 6:10).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 *Communio Sanctorum*



## 제5장 이중 문제

“도대체 무엇이 죄에게 발생했는가?”고 저명한 심리학자가 쓴 최근의 책제목이 묻는다. 그 대답은 죄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추하고 더 득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작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생각지도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의 실재성과 심각성을 기꺼이 인식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해되거나 수용될 수도 또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에 대한 해답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욕구가 인식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픈 소망을 밝힌다(1:15). 그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1:16).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 친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차선책을 행하였다. 그는 편지에 복음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로마서).

바울은 복음(“좋은 소식”)을 찬양하고 강조하는 도입부의 촌평에 이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혹독하고 어두운 몇 마디 유죄판결의 말로써 서신의 주요부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1:18). 그리고 이 불의의 비뚤어진 본성은 그 장(章)의 남은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된다(1:18-32).

이것이 기쁜 소식처럼 들리는가? 분명히 아니다. 그것은 풀이 죽게 하는 것이고, 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필요한 전주곡이다. 구원이 수용되기 전에 죄는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한다. 사람은 의사의 진찰을 받으러 가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사실성과 실제성을 단언한다.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유죄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롬 3:23).

우리가 우리 죄의 사실성을 인정한 후,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을 또 하나의 문제, 즉 죄성(罪性)과 그것의 결과들에 돌려야 한다. 이것이 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의 성격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 구원의 성격의 진가를 자세히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장(章)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죄가 우리를 빠뜨리는 곤경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죄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결과들을 갖는다. 그것은 우리를 유죄로 만드는 한편, 우리를 병들게도 한다.

## 1. 죄는 우리를 유죄로 만든다

죄로 인해서 야기되는 첫 번째 문제는 죄가 우리를 유죄로 만든다는 것이다. 유죄는 내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나 존재에 관련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들의 문제이다. 유죄하다는 것은 하나님 및 그분의 율법과 잘못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라.)

### A. 법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중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룰 때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거슬릴 때면 불행이 발생한다.

“율법과 불화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왜냐하

면 어떤 율법이든 간에 복종 받아야할 명령들뿐 아니라, 만약 그 율법이 깨지면, 받아야할 처벌들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차별도 없다. 그것은 유죄를 향해 사형을 규정한다(롬 1:32, 6:23). 이것은 가공할 둘째 사망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지옥의 불 못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이다(계 21:8).

성경은 이와 관련된 모든 용어들, 즉 심판, 유죄선고, 저주, 처벌, 형벌, 진노를 사용한다. *유죄*라는 말에서처럼 이 용어들은 모두가 법적용어들이며, 죄의 법적결과들을 언급한다. 그것들은 율법의 위반에 대한 필연적이고 쓰라린 열매들이다.

## B. 하나님의 진노

특별한 강조를 위해 뽑혀야할 한 가지 항목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현대인은 (비록 그가 결국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실재를 부인하거나 그럴싸한 설명으로 회피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친절하시므로 그분은 분명히 진노나 분노처럼 그렇게 저급한 무엇인가를 경험하실 수 없다고 말들을 한다.

그런 사단의 기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반대한다. 주님의 진노하심보다 더 무섭게 현실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선지자 나훔은 묻는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나 1:6 KJV). 또 한 분의 예언자가 경고하였다. “.... 백성이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슥 2:1-2 KJV).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진노하셨으며(막 3:5), 지옥에 관하여 경고하셨다(마 10:28). 사람들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오면, “어린양의 진노”로부터 공포에 떨며 도망칠 것이다(계 6:16-17).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그분의 진노는 예측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는지 정확

히 안다. 그것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롬 1:18)를 향하여 맞서고 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긴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히 12:29).

그러므로 한 가지 죄의 결과는 그것이 우리를 유죄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위협아래 서 있다.

## 2.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

죄의 두 번째 주된 영향은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픔이 종종 발병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육체적인 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혼의 아픔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영의 본성은 약화되고 부패하게 된다.

환언하면,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바로 그 본성, 바로 그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죄스럽고, 영적으로 병이 든다.

### A. 죄성

행위들만이 죄스러울 뿐이고, 사람들 그 자신들은 죄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사람들은 죄인들(즉, 죄를 범하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또한 죄스럽다. 죄스러움은 질병처럼 영혼을 전염시킨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배우기에 가장 어려운 교훈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도 죄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도 죄란 것이다. 부패의 형태에서 죄는 우리의 바로 그 본성 속에 있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심지어 그렇게 태

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도 역시 잘못이다. 우리의 본성들은 타락하지만,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죄들의 결과로 타락된다(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라. -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람과 그의 행실을 나무와 그 열매로 비교하셨다. 썩은 나무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악이 우리의 바로 그 본성에 안주하고 있음을 보여 주신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분은 말씀하신다(마 7:17). 그 분은 이 직유(直諭)를 마태복음 12장 33-35절에서 다시 사용하시고, “....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결론을 내리신다.

성경은 종종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들의 용어으로써 기술한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생생한 그림을 제공한다. “....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사 1:5-6 KJV).

죄 많은 상태는 약함의 상태이다(롬 5:6).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다(롬 3:18, 계 3:17). 우리의 입과 혀와 입술은 병들어 있다(롬 3:13-14). 우리는 정신박약이다(롬 3:11, 8:7, 딤후 3:8). 성경에서 인간의 내적 영적 본성을 대표하는 마음은 연약하고 병들어 있다(렘 16:12, 겔 36:26, 엡 4:18, 마 5:19).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렘 17:9 KJV).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나빠서 그것은 죽음의 상태로 불린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엡 2:1,5, 골 2:13). 알렉산더 캠벨이 이 최악의 상태를 요약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의 일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소경이고 죽어 있다”(Christian Baptism, p. 231).

## B. 죄들과 죄 많음

우리가 악한 일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쉬우나 우리 자신이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한 장의 백지처럼 정상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은 백지 위에 검은 점들 같을 것이다.

우리가 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종이 자체가 검다는 것이며, 그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의 모든 부분이 검다는 것이다. 마음이 부패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죄스런 행동들을 일으킬 것이다.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아해한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죄들을 범할까라고 의아해 한다. 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없을까? 무엇이 죄들을 야기하는가?

일단 사람이 유혹에 굴복하여 그 첫 번째 죄를 범했다면, 그는 악순환의 희생물이 된다. 그가 더 많은 죄를 범할수록, 그는 더욱 죄가 많아진다. 그리고 그가 더욱 죄가 많아지면, 그는 더 많이 죄를 짓는다.

우리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죄성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며,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한다. 또 다시 예수님은 이점을 설명하시려고 나무와 그것의 열매에 호소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다(마 7:17).

또 다른 시기에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 12:33-35).

문제는 악한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마 15:18-19).

볼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죄들은 무서운 내적인 질병의 증상일 뿐이다. 붉은 점이나 열이나 마른기침처럼 그것들은 보다 더 나쁜 내적인 무엇인가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나쁜 말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며, 이웃을 속인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그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것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는 별개로 죄의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증상을 억누르지만, 질병이 내부에서 저지당하지 않고 사납게 날뛰게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분명히 재발할 것이다.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 죄스러움을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증상들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 3. 이중 문제

이렇게 죄는 일종의 “이중 문제”로 우리에게 남겨졌다. 첫째, 우리는 유죄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둘째, 우리는 영적으로 부패하며, 그래서 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의 이중적 성질이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 부인에게 화를 내는 (물론 부당하게) 한 성마른 남편을 상상해

보라. 그는 집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차를 타고는 굉음을 내며 도로를 달린다. 교차로에서 그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고속도로에 급히 진입하다가 이내 트럭과 충돌한다.

이 사람은, 그의 무모한 짓의 결과로써, 이중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그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렸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법의 문제를 갖는다. 그 결과로 그는 경찰들과 변호사들과 판사들과 마주해야 하며, 상당한 금액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다른 한편, 그는 의료문제를 일으켰다. 사고 때 그의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다른 종류의 문제이며, 다른 방법(응급실, 의사들, 기브스)으로 치료될 것이다.

죄인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은 그도 역시 위법의 문제와 죄로 인한 건강문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은 그 두 가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 문제에 대해 이중 치료가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두 개의 장(章)들에서는 그 치료의 측면들이 다뤄질 것이다.

## 제6장 쉽지 않은 길

우리의 유죄문제에 대한 해답은 의롭다하심이나 사죄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한 때 유행했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을 슬프게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말할 거예요, ‘나는 용서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가는 방향에 당신의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씀만하시면 되는 것인가? 용서받거나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은 “무죄”로 선포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가?

이 물음에는 단 하나의 해답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듯이 “그분의 피로써 의롭게” 된다(롬 5:9). 그렇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용서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이 장(章)에서 우리는 *화목제물(propitiation)*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 1. 화목제물

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의로우시고(just)*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

시는 *분(justifier)*이 되시고자한(롬 3:26) 때문이다. 여기에 아주 간결한 해답이 있다.

보통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이것은 이차적인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의존한다. 죄인들인 우리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최종분석에서 볼 때,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다. 십자가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가 있다.

로마서 3장 26절은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 즉 *의로우시고(just)* 또 *의롭게 하시는 분(justifier)*으로서 완전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제멋대로 택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그분은 그분의 바로 그 속성을 표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이 의로우시고, 또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성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들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십자가를 필요하게 만드는가?

### A.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어떤 사람은 물을지도 모른다. “만일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분은 십자가와는 별도로 죄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가? 왜 그분은 단지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그냥 털어버리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선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의 정의에 놓여 있다.

“....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신 32:4 ASV).

정의 혹은 옳음은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처벌하시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특성이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이

며, 그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위반이며,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실질적인 시도이다.

예를 들어, 속이지 말라는 계명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바로 그 본성에서 샘솟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딤후 1:2).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위반이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그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만드신 어떤 추상적인 율법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이 이렇게 거짓말이나 어떤 다른 죄로 인해서 공격받았거나 부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바로 그 성품을 모독하는 그것을 간과하실 수 있을까? 어렵도 없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서 거짓말들과 살인들과 간음들이 존재하지 않는 체하실 수 없다. 그분의 정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 죄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분 자신의 본성이 위반될 때 그 위반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정의는 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분의 정의는 그분의 진노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그 불꽃은 죄를 극렬하게 태워버린다. 그분의 정의의 분노는 모든 죄인들 위에 반드시 쏟아부어져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히 12:29).

## B.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또다시 반대한다. “당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하는군요. 그렇다면 좋

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그분이 의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도록 하세요. 그분이 우리 모두를 지금 당장에 지옥으로 던지게 하세요. 그분이 그분의 영원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내리시도록 하세요.” 사실 정의는 만일 모든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면 만족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가 없이도 만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왜 그분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는 대신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라). 만약 정의가 만족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의 본성에 딱 들어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고, 사랑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벧후 3:9, 딤후 2:4). 그러므로 만약 모든 사람이 멸망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본성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의롭게 하시는 분이셔야 하는 이유이다. 말하자면, 그분은 그분의 진노가 우리를 소멸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셔야만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의 곤경, 즉 하나의 불가능한 요구를 제시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바란다. 그러나 정의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고, 정의는 우리의 천벌을 요구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적합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전지하신 구세주의 능력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이 배태(胚胎)한 곤경에 대한 해답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그 해답은 그분의 독생성자(獨生聖子)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그분에게 죄를 처벌하실 것과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모두 다 요구한다. 십자가를 필요하게 만드는 것

은 이 분명히 믿기 어려운 임무이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 C.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어떻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야기되는 이 곤경을 만족 시키는가? 그 문제에 해답이 되게 하는 십자가에 무엇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것은 화목제물이기 때문이다.

화목제물은 진노를 푸는 제물이다. 예를 들면,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했던 성마른 남편이 (5장을 보라)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래서 그는 꽃가게를 찾아가 12송이 장미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 꽃들은 화목제물, 즉 그를 향한 아내의 분노를 풀게 할 목적의 제물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기술한다(롬 3:25, 요일 2:2, 4:10 KJV).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마땅히 받아야만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자기 자신이 받음으로써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사법적인 요구들을 충족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전 15:3).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벧전 2:24).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개념은 두 개의 다른 인상적인 표현들,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바” 되셨고(고후 5:21),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갈 3:13)에서 보다 더 분명히 나타난다.

비록 그분은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 유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와 매우 밀접하게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자신의 몸에 죄로 인한 저주를 담당하실 수 있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의미, 즉 우리 죄들을 향한 전력(全力)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의 형벌이 자기 자신에게 가(加)해지

도록 허용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워지게 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분이 되게 한다.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구절들에 나오는 대속에 관한 강조를 무시할 수 없다.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하셨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의로우실 수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다면, 우리의 죄들은 이미 그분 안에서 처벌되었다. 우리로 인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 위에서 이미 스스로를 불살라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우리에게서 용서되는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처벌되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 있고 또 의롭게 하시는 분이실 수 있다.

## 2. 의롭다하심(칭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롬 3:25)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하심을”(롬 5:9)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만약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을 신뢰한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조차도 의롭게 하실 것이다(롬 4:5).

유죄? 그렇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덮고 유죄를 흡수해버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마치 그가 유죄하지 *아니한* 것처럼 취급하실 수 있다. 내가 의롭다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내가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처럼” 취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인들? 그렇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붙들어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죄선고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 3. 화목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에서 산다. 바울은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평화성취는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사역의 또 다른 측면이다. 그것은 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이란 사실을 참작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적의와 증오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기”(롬 5:10)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하는 데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의가 반드시 제거돼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을 향해 적의를 품을 수 있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게 했다고 가르친다(사 59:2). 그분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합 1:13). 죄인들은 신(神)의 증오의 대상이다(잠 6:19).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의이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롬 5:10). 그 화목

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기도 전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선언도 되기 전에, 그분께서 성취하신 어떤 것이다. 그분의 진노와 적의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돌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분 편에서 화목과 평화에 걸림들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셨다.

화목을 향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적의를 반드시 치워야 하며,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한다(고후 5:19-20). 이 방식에서 우리는 이미 성취된 화목을 바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롬 5:11).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그분의 친구들이 된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죄문제를 해결하셨다. 하지만 그분 자신에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그리된 것이다. 그 비용은 그분의 독생성자의 죽음이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신(神)의 진노와 적의가 쏟아 부어졌다.

## 제7장 이중 치료

우리가 보았듯이, 죄는 일종의 “이중 문제,” 즉 유죄와 영적 질병을 낳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죄 문제를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가를 보았다. 그렇지만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가? 우리의 영혼의 죄악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역시 해결하셨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히 7:25) 구세주로부터 그밖에 무엇을 기대해야겠는가? 만일에 “이중 문제”가 있다면, 그분은 “이중 치료”를 제공하실 수 있다!

날 위해 쪼개지신 만세 반석이시여,  
당신께 제 자신을 숨게 하소서.  
당신의 상한 허리에서 흐른 그 물과 피가  
죄에 대한 이중 치료가 되게 하소서.  
죄의 유죄와 권세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새 찬송가 494장 1절, “만세반석 열리니”를 참고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유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길 필요한 힘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새 생명과 새 영적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사단을 패배시키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죄와 질병을 회복하는 이 과정은 중생(重生) 또는 신생(新生)으로 시작되며, 그것의 지속은 성화로 불린다.

다른 친숙한 찬송가들은 이런 “이중 치료”를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성화하시려고” 고난 받고 죽으신 그 “낮고 험한 십자가”에 대해서 노래한다. (새 찬송가 150장 3절, “갈보리 산 위에”를 참고하라.) 우리는

“그의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의 피로 씻긴 복된 확신”을 갖는다. (씻겼든지 깨끗케 되었다는 것은 용서받았다, 유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참고하라.)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세주는 또한 우리에게 “깨끗케 하는 은혜와 자유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 (새 찬송가 268장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를 참고하라.) 그러므로 “용서된 죄이고, 회복된 사람이다.” (“오 하나님, 당신의 손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중 치료 개념은 성경에 확고히 근거한다. 구원의 이중적인 특성은 에스겔 36장 25-27절에 예언되어 있다. 25절은 죄 씻음을 말한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KJV). 그리고 다음의 두 구절은 성령님을 통한 신생(新生)을 기술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KJV).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주신 교훈에서 그것을 요약하신다. “....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베드로는 오순절 날 행한 그의 이중 약속에서 이중 치료를 반영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행 2:38).

본 장(章)에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죄성(sinfulness)을 치료하시는가를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될 것이다.

## 1. 새 생명은 무엇인가?

바르게 이해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파격적이다. 그것은 죄에 얽매인 우리 마음들이 기대할

것과는 너무 달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픈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반면에 그 개념의 근본적 성격은 일부의 사람들을 완전히 거절되고 보증이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위들은 (구원에) 무관하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허가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물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예상한 반론이다. 이 거짓 논거에 대한 그의 대답은 간단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자들은 구원에 대해 매우 제한적 이해를 갖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구원이 단지 용서(의롭다하심) 그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보지 않는다. 구원은 또한 새 생명, 즉 의로움이 관례이고, 죄가 예외인 생명을 수반한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한다. 그것은 도덕적 모순이며, 모든 도리에 상반(相反)된다. 옛 사람(self) 즉 죄에 끌리고 죄짓는 것을 즐기는 마음은 죽었다. -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서 우리는 노예로 만드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롬 6:6-7).

이 옛 죄성(죄지을 성질)의 죽음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수반(隨伴)한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 에스겔의 예언을 상기하자.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겔 36:26 KJV).

우리의 이 내적 본성의 변화가 신약성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된다. 기술된 개개의 표현들은 그 변화의 근본적 본성을 강조한다. 그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A) 부활(Resurrection)**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개념을 언급하지만, 이 개념은 다른 많은 곳에서도 또한 나타난다. (엡 2:6, 골 2:12, 3:1을 보라.) 대화중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영혼이 죽은 자들로부터 문자적으로 살아난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時)에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한 영적 부활이요, 선구(先驅)이다.

**B) 소생(Quickening)**

이 어휘는 모든 것을 포괄한 가장 오래된 말이지만, **흠정역(KJV)** 시대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을 뜻하며, 가장 최근의 개역들에서 그렇게 번역된다. 이것은 분명히 **부활**과 동의어이며, 정확히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엡 2:5). 또 요한복음 5:21-25, 요한일서 3:14, 골로새서 2:13을 보라. 부활과 소생 이 두 개의 표현들은 우리 본성들의 변화를 기술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을 형성한다.

**C) 중생(Regeneration)**

신국제개역(NIV, 딤편 3:5)에서 “거듭남”(rebirth)으로 잘못 번역된 이 어휘는 문자적으로 “다시 시작” 혹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은 새 생명이 주어진 자비로운 기회를 강조한다.

**D) 새로워짐(Renewal)**

이 말 또한 새로움(newness)이 주된 개념이다. (딤편 3:5, 엡 4:23을 보라.)

**E) 새 피조물(New Creation)**

이 단어보다 더 새 생명의 근본 본성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또한 갈 6:15, 엡 2:10을 보라).

### F) 거듭남 (Rebirth)

이 개념에 사용된 어근은 “낳은”(begotten) 혹은 “태어난”(born)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차이점은 중요치 않다. 어느 쪽 말이든 죽음에서 혹은 무생(無生)에서 새로운 혹은 살아있는 존재로의 전환을 말한다. (출생과 부활 사이의 동일함은 표현, 즉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에서 보일 수 있다. 계시록 1:5, 골로새서 1:18을 보라). 비록 “거듭남”(born again)이란 표현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부활”이나 “살아나셨다”(made alive)는 표현들만큼 거의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3:3-5, 베드로전서 1:3, 22-23을 보라.

### G) 할례(Circumcision)

이 마지막 어휘는 죽음의 부정적인 측면 혹은 옛 죄지를 성질의 제거를 강조한다. 마음이나 영혼에서의 영적 작용을 말하며, 따라서 이미 열거된 어휘들과 유사하다. 그것은 일종의 공통적인 표현이다. 골로새서 2:11-13, 사도행전 7:51, 로마서 2:29, 빌립보서 3:3을 보라.

이 모든 표현들은 단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근본적 변화, 즉 그 결과가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인 변화를 언급하는 다른 방법들일 뿐이다.

## 2. 언제 새 생명을 받는가?

우리가 상기한 역동적 표현들을 검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기로 약속한 것들에 몹시 감격하게 된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몇몇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나에게 일어났는가? 만약 그렇다면, 언제 그런 일이?”라고 경탄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언제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침례 시(時)에 일어난다고 그 대답이 신약성경에 명백히 진술되어 있다. 바울은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롬 6:3-4).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침수 세례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침수세례를 성령님의 내적 침례와 분리하려는 이들은 성경말씀에 대항하는 것이다 (엡 4:4 - 오직 하나의 침례만 있다).

모든 것 중의 가장 명확한 진술은 골로새서 2장 12절이다. 그 말씀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말한다. 물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일어난다. (요한복음 3:5, 디도서 3:5, 사도행전 2:38절을 또한 보라.)

그것이, 시간적으로 어떤 다른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고, 침례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단순히 이것이 명확한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다. 우리는 어떤 따스한 내적 느낌이나 그 약속을 유효하게하기 위하여 우리를 필연적으로 일깨울 정서적 경험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수용할 때 당신의 약속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드릴 때, 그의 약속들을 지키신다.

성경을 믿는 큰 무리의 사람들은 사람이 침례를 받기 이전에, 다시 말하자면,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신생(新生)을 주신다고 진실하게 믿는다. 제발 이 시점을 참말로 분명하게 하길 바란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와 새로워짐이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믿자마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그 가르침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through) 일어나지만, 침례 가운데서(in) 일어난다(골 2:12).

일부의 사람들은 침례가 신생(新生)의 시점인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임신 혹은 잉태가 출생이전에 발생했어야만했다는 것을 함축하는 은유를 펼친다. 그러므로 신생은 이미 침례이전에 시작되었다고 언급된다.

이 은유의 펼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출생의 은유가 새로운 시작을 기술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은 참으로 제외되고 만다. 그것(출생)과 대등하고 성경말씀에 훨씬 잘 도드라진 개념은 부활이다. 우리가 이 모든 어휘들의 의의(意義)를 함께, 특히 부활과 소생을 파악할 때, 우리는 두 시기(임신과 출생)속에 있는 변화의 개념이 그것들이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을 상반되게 한다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시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에서의 변화는 우리 자신들이 회개를 통해서 성취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왔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로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다른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을 결심한다. 이 정신과 마음의 변화가 신생(新生)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변화를 기술하는 표현들의 목록을 검토할 때 우리를 일깨워야 할 한 가지는 그것이 대단히 근본적이어서 단지 우리의 하잘것없는 자기결심으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무엇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부활이다. 그것은 창조(creation)의 한 행위이다. 그것은 중생(regeneration)이다. 그 같은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 (골 2:11을 보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뤄진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들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침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행 2:38).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요 3:5). 우리의 침례는 “중생(신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딤후 3:5)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자.

### 3. 새 생명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게 하신다.

불신앙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죄에 노예들이었다(롬 6:17-21). 우리는 죄지을 성질들의 연약함 때문에 쉽사리 유혹에 굴복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죄는, 비록 필요치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화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을 때 일어난다. 죄의 권세는 깨지고, 우리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롬 6:12).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물론 우리는 이 생명을 아기들처럼 시작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전한 채로 그것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책임은 그의 새 생명에서 성장하는 것이요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영적으로 되는 것이다(마 5:48, 벰전 1:16). 이 과정이 성화(聖化)로 불린다(살전 5:23). 그것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 제8장 오직 시작일 뿐

앞장에서 기술된 새 생명의 시작은 우리 가운데 누구나 경험하게 될 아마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오직 새 생명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심오한 가능성들로 가는 길을 개방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그 형상을 따라 빛어진 피조물로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지금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거듭남의 실체는 마음의 내적 변화, 곧 우리의 근본 본성에서의 변화이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드린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의식하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의 삶을 고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기호(嗜好)들, 우리의 욕망들, 심지어 우리의 동기(動機)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노예상태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성결의 모범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임무인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변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결심해야 하고, 또 우리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능력과 자유를 사용하여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 1. 변화의 필요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한 변화는 필요하다. 변치 말아야 할 유

일한 것들은 완전한 것들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와 그분의 성결과 율법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때, 한 가지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분명해진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성에서 얼마나 먼 길에 있는가를 배운다.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7장 7-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의 지식을 통해서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깊어지는 의식을 기술한다. 예를 들면, 만약 그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는 무엇이 탐욕인지 혹은 그가 탐내고 있는지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명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참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람은 죽음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자기 죄와 영적인 죽음을 깨닫게 한다. 그 같은 지식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기 위하여”(7:13) 필요하다.

심지어 우리가 침례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 후에도 우리들의 삶을 위한 탐조등으로써 우리가 어디에서 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는 유기체는 반드시 변해야 하며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죽게 될 것이다.

## A. 지식의 성장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비롯된다. 구약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백성, 즉 유대인들을 예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세계의 구세주를 받게 하셨는가를 알게 된다. 복음서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구세주의 생애, 가르침들, 죽

음과 부활에 대해서 배운다. 사도행전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교회,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성장했는가를 알게 된다. 신약성경의 나머지 책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께서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분의 교회와 백성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배운다.

그 같은 연구를 통해서 또 교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사실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성장을 등한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을 책망하신다. 우리가 성경의 더 심오한 가르침들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어야 할 때에 우리들 가운데 상당수는 젖을 빠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마치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해야 한다(5:12).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6:3).

## B. 태도의 성장

성장의 두 번째 분야는 우리의 태도들, 즉 우리의 전체 내적 삶에 있다. 죄 많고 자기중심적 태도들은 사심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들로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미움과 무관심은 사랑으로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과 탐욕이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그 대신에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반드시 통제아래 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냥함과 친절로 채우시도록 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10절의 “팔복”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들의 종류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온유, 겸손, 자비, 마음의 청결, 그밖에 다른 은혜들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비슷한 목록을 제시한다. 그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열거한다. (또한 벵후 1:5-6, 빌 4:8을 보라.)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할 가장 어려운 변화는 십중팔구 이 태도들의 분야에 있다.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과정이 고통스럽고 더딜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하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열심히 종사해야 한다.

### C. 선행의 성장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선행들에서 우리의 외적 행동에서 혹은 삶의 매너에서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죄의 습관을 반드시 정복해야 하며, 죄의 활동들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습관들과 실천들의 패턴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사랑, 순종, 선행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 2. 변화의 소망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에 항상 조급해 한다. 어린 소녀들은 엄마의 의복과 구두를 신고 화장을 한다. 청소년들은 자동차를 운전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차기를 열망한다. 그들은 모두 성숙한 연령에 도달하기를 소망한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부터 반드시 그의 깊은 소망이어야 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벵전 2:2). 우리는 어릴 때의 연약함과 좌절들로부터 성숙에 따르는 성취의 힘과 기쁨에까지 변화하기를 반드시 정말로 원해야한다.

우리는 신생아가 일어서서 100야드 경주에서 달리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초짜 그리스도인이 즉시 완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다양한 성장의 단계들에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 있어야할 존재가 아니

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안다. 우리는 여전히 원치 않는 죄로 인해 괴롭힘을 당한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죄인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극히 중요한 것은 변하고자하는 *신실한 소망(sincere desire)*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도다”(롬 7:18-19)고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는 성가신 죄로 인해서 좌절하는 우리 자신들을 종종 발견할지도 모른다.

무엇이 바울을 믿지 않는 죄인과 다르게 만들었는가? 바울이 불신자와 달랐던 것은 그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죄짓는 것을 멈추고, 선하기를 원하였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태도들과 행동으로 성숙해지려는 우리의 노력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좌절을 겪어야 하지 않는가? 대답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 격언에서 요약된다. 우리의 뜻이 변화하려는 소망에 참으로 전념될 때, 변화의 자유와 능력의 길이 우리의 뜻에 달려있다.

### 3. 변화의 자유

변화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것은 “성령님(으로)의 선물”(행 2:38)이나 다름없다. 성령님 그 자신은 우리 안에, 즉 우리의 바로 그 삶과 몸들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고전 6:19). 그분의 해방하시는 임재는 우리들

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영적인 건강과 깨끗함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다.

### A. 성령님의 임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영적 자원을 갖지 않는다. 그는 힘이 없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롬 5:6). 로마서 8장 5-8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인은 마치 건강을 해치는 질병에 조종당한 사람과 같다. 그는 그의 발들을 그것들이 가야할 곳으로 가게 할 수가 없다. 그는 그의 손들을 그것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할 수가 없다. 그는 그의 입을 그것이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 그는 그 자신을 의사에게 내맡길 수 있고, 의사는 그를 치료하고 약을 처방하여 제 몸을 자신이 통제 할 수 있도록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그 자신을 위대하신 의사 성령님께 굴복시킬 수 있고, 위대하신 의사는 그의 삶과 몸에 성령님 자신으로 채우실 수 있다. 성령님의 고침과 자유하게 하는 임재를 통해서 죄의 권세는 깨진다. 바울이 말한 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롬 8:9. 11절을 보라).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틀림없는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바로 그 몸들 속에 주거를 정하시게 된다(고전 6:19). 이것은 새 언약시대의 축복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에스겔은 그것을 예언하였고(36:27), 예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다(요 7:37-39).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침

례 안에서 수여자를 만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선포되었다(행 2:38).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침례 때에 성령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만약 우리가 침례 때에 철저한 항복으로 그분을 만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상의 어떤 확신도 더 필요치 않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 영적 자원, 즉 성령님의 임재를 참으로 갖고 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지를 성질에 대하여 승리를 주신다.

## B. 성령님의 능력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의 목적을 오해해왔다. 그들은 성령님이 어떤 종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해왔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롬 8:14)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말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내적 지식이나 인도를 기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벧후 1:21).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모르는데 있지 않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데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의 목적이 능력이라는 한 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영적 에너지와 도덕적 힘의 근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by the Spirit)이다. 우리가 “몸의 행실(잘못된 행실)을 죽이는”(롬 8:13) 것은 “성령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즉 우리가 그분이 성경에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하고, 우리가 그 길에서 걷고자 하는 우리의 뜻과 결심에 그분이 힘을 실어주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RSV)는 빌립 보서 2장 13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바울은 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엡 3:16) 기도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혹을(고전 10:13을 보라) 물리칠 능력과 성결하게 성장할 능력을 주신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과 의지력을 의존하기 때문에 종종 실패하고 만다.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시작하자.

유혹에 맞닥뜨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저지할 결심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식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한숨 돌리고 기도해야 한다. 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우리가 원하고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할 태도들을 발전시켜주시도록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의지는 성령님께 반드시 온전히 굴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뜻을 거슬러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전히 행복한 마음에 그분은 자유와 능력을 부여하신다.

## 제9장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복 받은 확신, 예수님은 나의 것, 이 무슨 영광과 신성의 미리 맛봄인가!”(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곳에서 출석이 불릴 때, 나는 거기에 있겠다”(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래,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혔어. 하나님의 나라의 책의 희고 깨끗한 페이지에 - 그래,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혔어!”

“앞에 있는 상을 향해 앞으로 가자! 머지않아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바라볼 것이다. 머지않아 진주 문들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황금 길들을 밟을 것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들의 상당수가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를 적고 있다. 우리는 그 찬송들을 매주일 부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날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심판 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염려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것을 뚜렷하게 가르친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도 좋다. 이것이 바로 그 성경적 어휘인 소망의 의미이다. 성경에서 소망은 간절히 바라는 생각이나 불확실한 갈망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만만하고 확실한 무언가 좋은 것에 대한 기대이다. 그것이 소망이라 불리는 것은 그 대상이 오로지 여전히 미래에 있기 때문이지,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상당히 혼란스런 생각이 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는 결코 다시 잃어버림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비성경적 극단으로 치닫는다.

다른 한편, 상당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확신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래,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혔어”라고 노래하는 대신,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어?”라고 그들은 그것을 질문으로써 오직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천국에 간다면 - 그리고 저는 만약이란 말을 강조하였습니다”는 말로 지역교회의 한 장로가 그의 주일성경클래스에서 말했을 때, 그는 이 공통적인 의심을 표시하였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확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확신의 근거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확신이 그들이 갖고 있지 않거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에 근거한다고 생각한다. 의심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지배한다.

본 장(章)에서 우리는 확신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과 잘못된 근거들을 폭로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실성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토대,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입증되고, 침례 때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탐구할 것이다.

## 1. 확신과 예정

영원한 안전의 교리 혹은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주후 430년에 사망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라 불리는 북아프리카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원래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칼뱅주의로 알려진 교리들의 체계나 묶음의 일부분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 부패하다는 개념으로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자기 자신의 자유 의지로는 복음을 믿거나 복음에 응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누가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선택을 하신다. 이것이 무조건적 예정 혹은 선택으로 알려진 것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할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가 예정하신 자들의 마음들을 여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들을 바꿔서 그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게 하신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불린다.)

환언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과정을 조종하신다. 우리의 의지들은 그 과정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들을 무시한 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결코 잃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 모든 체계는 완전 타락이라는 그릇된 개념에 근거한다. 죄인이 선한 일들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롬 8:7-8). 그러나 한 가지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다. 모든 죄인은 죄에서 돌이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율법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초청하신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 22:17).

이 체계는 또한 예정에 관한 그릇된 이해를 포함한다. 하나님은 참으로 어떤 사람들을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신자들이 될 것을 오직 그분이 *미리 아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9절은 그것을 명백히 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은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영화롭고 부활한 상태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여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여 우리를 지속적으로(끝까지) 구원받게 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신

자가 지속적으로 그의 믿음에 머물 경우에만 그가 구원받을 것 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1:23, 히브리서 3:6-14, 4:1,11, 6:4-6을 보라.

몇몇 교단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 받는다”는 교리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반면에 완전 타락, 무조건적 선택, 거절할 수 없는 은혜는 거부한다. 환언하면, 그들은, 그들이 비록 틀 그 자체를 올바르게 거부했지만, 어떤 한 틀 안에서만 일리가 있다는 믿음을 고수한다. 적절한 다음 단계는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거부하는 것이다.

성경은 확신을 가르친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의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무조건적인 확신이 아니다.

## 2. 확신과 경험

오늘날의 공통 개념은 만약에 당신이 어떤 종류의 느낌이나 경험을 가졌다면, 당신은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의 종류는 다양할는지 모른다.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기도하는 동안 경험한 따뜻하고 열열한 느낌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능력일 것이다.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념은 동일하다. 만약 당신이 경험을 가졌거나 느꼈거나 행하였다면,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은, 만약 당신이 그 같은 경험을 갖지 않았다면,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접근이 잘못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장해야 한다. 첫 번째로 주관적인 느낌은 애매모호하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는지 모른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은 어느

주관적인 느낌의 근원이나 원인을 식별하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방언 말함”이 심리적으로 제약받거나 귀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타고난 모호성은 경험을 확신에 대한 빈약한 근거로 만들고 만다.

또한 느낌들과 경험들은 자주 변하기 쉽다. 우리는 오늘 놀라운 느낌을 가질는지 모른다. 또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다는 결론을 내릴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일 비극적인 경험을 갖거나 불쾌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난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주관적인 특별한 느낌이나 경험이 개인적인 구원의 확실한 표시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아래서 살펴보게 될 내용처럼 객관적인 사건들에 매인다. 자기 자신 안에서 보는 자는 소망에 대한 어떤 참된 근거도 찾지 못할 것이다.

### 3. 확신과 선행들

아마도 가장 슬픈 접근은 구원의 확신을 개인의 선행의 어떤 정도에 연결 짓는 것이다. 여기 한 개인이 구원받기에 “충분히 선행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믿기 어렵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기에 참으로 충분히 선하다고 결정할는지 모른다. 또 강한 확신의 느낌을 가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눅 18:9-12) 그들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확신을 선행에 근거를 두는 대개의 사람들은 그러나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다. 대다수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란 것을 깨닫는다. 대다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까지

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목표에 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늘을 찌르는 자량과 추정이 아닌가? 우리는 그냥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그 때문에 이 생애에서 확신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심판 날에 그의 행위들이 평가되고 인정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슬픈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적인 태도인가! 아무도 충분히 선하지 못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것을 받기에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 아래서, *비록* 우리가 죄인들일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죄가 거기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의 근거이다.

환언하면, 우리가 삶의 어느 지점에 도달할 특정한 선함이나 성화의 정도에 우리의 확신을 연결 짓는 것은 잘못이다. 그 같은 접근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확신에 대한 진정한 열쇠는 바로 이 사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지 율법의 행위으로써 받지 않는다는 의식이다(롬 3:28).

#### 4.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들

여기 질문이 있다. 만약 당신이 바로 이 순간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 같은가? 두 눈을 감고 당신의 대답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그 질문을 심사숙고할 때, 당신은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했는가? 당신 자신이었는가? 당신 자신의 느낌들, 경험들, 혹은 선함이었는가? 당신이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하다해도 이상할 것 없다. 이 모든 근거는 “가라앉는 모래”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는가?

당신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을 기억했는가? 당신은 모든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에게 감사했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 당신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독점적으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인 확신의 근거가 놓인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궁극적으로 놓여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들 위에서 있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분은 이들 약속들을 어떤 객관적인 사건들에 얽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손에 쥌 수 있고, 그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객관화하고 성취시키는 세 가지 사실들이 특별히 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이들 사실들을 그냥 상기해야한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궁극적인 증거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요한복음 3:16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하고 싶을 때, 우리는 갈보리, 즉 친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깨질 수 없는 보증을 기억해야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럴 수 없다. 아무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아무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해야 하는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 확신을 심지어 더 확고하게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들이었던 때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고 있는 지금 그분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지 않겠는가라고 바울은 말한다(8-9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10).

둘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증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 즉 우리를 침례 때에 영적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고, 재림 시(時)에 우리들의 몸들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신다. 왜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소망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라.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침례*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침례 때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내가 용서받고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면,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모든 유죄와 형벌이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다면, 내가 의롭다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침례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왔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안다.

나는 나의 느낌을 의심할는지 모른다. 나는 나의 경험들을, 특히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상히 여길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잊지 못할 객관적인 참고(參考) 지점, 즉 내가 침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을 여전히 갖는다. 또 그분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거기서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들의 느낌 위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 위에 놓인다. 그것은 우리들의 행위 위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들 사역들 위에 놓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 위애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신실함 위에 두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히 10:23).



[사도 바울]

## 제10장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교사의 반려동물들”처럼 어떤 사람들을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분이 “편애하는 민족들”을 갖고 계신가?

그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라는 울림이다. 성경의 기본원칙은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For God does not show favoritism)는 것이다(롬 2:11).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성경들이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애도 없으시다”(For there is no respect of persons with God. KJV).

이 명확한 가르침의 빛에서, 왜 우리는 유대나라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특별대우를 이해해야 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을 한 번 더 특권의 자리로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본 장(章)에서 우리는 이들 명백한 갈등들을 풀어보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합적인 은혜의 목적과 관련해서 유대나라를 위한 그분의 목적에 대한 물음을 탐구할 것이다.

### 1. 이스라엘의 구별

『하나님의 유대인 선택이 얼마나 기이한가!』(*How Odd of God to Choose the Jews*)라고 언젠가 미상의 저자가 책의 제목에서 밝혔다.

참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정말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독특한 관계를 맺으셨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대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KJV).

### A. 이스라엘의 목적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는가? 대답은 대체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 죄가 인류에게 유입된 바로 그날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선포하셨다(창 3:15). 그러나 구세주께서 역사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 계획에서의 핵심요소는 구원자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방법으로써 한 나라를 택하는 것이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의 독점적 선택이 그 자체로써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심히 중요하다. 그것은 차라리 *임시방편*, 즉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훨씬 더 큰 목적에 대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이 더 큰 은혜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구별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첫걸음, 즉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분명히 보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지만 그분의 분위기적인 약속은 이것이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창 12:2-3, KJV. 창세기 26:4를 보라). 나머지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 B. 이스라엘의 준비

단지 한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정확하게 왜 필요하였는가? 그 핵심어휘는 *준비*이다. 씨를 뿌리기 전에 수확할 경작지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택된 받을 같고 경작하며 준비했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오셨을 때 복 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을 채비가 되었을 것이다.

준비에 있어서 주된 요소는 특별계시를 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선포되지 않고, 설명되지 아니하며, 예기치 못한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유대나라는 이 계시에 필요한 그릇으로써 섬겼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설명한 그분 자신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다. 백성이 이들 놀라운 예언들을 읽고 보존하면서 그들은 강한 기대감과 희망을 발전시켰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적어도 남은 자는 그분을 맞이할 채비가 되었다.

### C. 이스라엘의 특권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타성은 오로지 모든 이에게 자비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임시적인 방편이었을 뿐이다. 이것이 이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영광과 소중함을 손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의 국가로 고려됐을 때, 그들의 특권은 전체 역사에 걸쳐서 걸맞지 못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롬 3:2)고 바울은 말한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롬 9:4-5).

역사상 그 어떤 나라가 대체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영광과 특권에 근접할 수 있는가? 하나도 없다.

## 2. 이스라엘의 거절

역사 속으로 세상의 구세주를 모셔오는 그들의 목적이 일단 성취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때 낡은 구두처럼 그냥 옆으로 치

워진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의 우선적인 배려가 이제 교회에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례일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물음에 대답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롬 11:1).

### A. 이방인들의 덧붙음

그 사실은, 일단 이스라엘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성취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된 나라로 남게 하실 의도를 결코 갖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분의 애정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 어떤 다른 나라로 간단히 이스라엘을 대체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롬 11:5), 즉 참 이스라엘 사람들(롬 2:28-29)을 취하는 것이었고, 항상 그랬으며, 또 그들을 새 이스라엘의 토대와 핵심으로 삼는 것이었고, 항상 그랬었다. 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포함할 것이었다.

이 계획은 성취되었다.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뒤따라온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교회라고 불린다.

이방인들의 결과적 포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본 계획의 일부였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을 보여준다(창 12:3). 바울은 이 약속에 관해서 의견을 말한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갈 3:8, 3:14를 보라).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나라들은 네 빛으로.... 나아오리라”(사 60:3)고 하였다. 요엘 2장 32절이 예언한대로, “누구든지 여호와 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KJV). 이방인들의 이 수용(포함)은 예언자들의 기본 메시지이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특권은 새 이스라엘의 뿌리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6-24절에서 감람나무에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조심스럽게 길러진 국내의 감람나무와 같았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 오래된 나무에 새 가지들, 즉 이방인들을 뜻하는 야생 감람나무 가지들을 접붙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제시킬 어떤 의도도 없으셨다. 그분은 그들이 본래의 가지들로 남기를 원하셨고, 이방인들을 덧붙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롬 10:12) 한 몸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 B. 유대인들의 불신앙

그러면 왜 초대교회이후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매우 탁월한 위치를 결코 갖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불신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였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대인 형제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는 선물인 구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생각을 주장하였다(롬 9:31-33). 바울이 지적한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롬 10:3).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기를 거절하는 모든 유대인을 새 이스라엘에서 배제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믿지 않는 가지들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롬 11:20) 그들 자신의 나무에서 단순히 꺾였다(롬 11:17).

이것은 물론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오로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받으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심지어 사도들에게 단지 깨닫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특별한 표적을 보여 야만하셨다(행 10:9-48). 이들 믿는 유대인들이 “은혜로 택하심

을 받은 남은 자”들이었다(롬 11:5).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들을 한 나라로써가 아니라, 개개인들로서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새 이스라엘에 포함되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배제된다.

### 3. 새 이스라엘: 누구든지 원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에서 그분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모두가 국적과 종족을 초월하는 하나의 단일체로 함께 모인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KJV). 제안을 받아드리는 자들은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이것은 초대교회가 배우는데 곤란을 겪었던 하나의 교훈이었다. 개종한 유대인들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들과 한 몸으로 합하는 것을 또한 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련의 계시들을 통해서(행 10:9-33) 주님은 이것이 정말로 그분의 뜻이었다고 베드로를 설득하셨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행 10:34-35).

#### A. 유대인들을 위한 한 계획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 국가로써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의 특별한 역할을 갖고 계시다고 믿는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재건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세우실 위대한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높임을 받고 두각을 나타낼 것에 대한 서곡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예언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써 근거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회복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을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의 고국귀환이 허락된 대략 주전 536년부터 팔레스타인에서 이뤄진 오늘날의 사건들에까지 적용하려고 시도한다. 영적 왕국인 새 이스라엘에 관해 말하고 있는 예언들이 회복된 유대인들의 육적 왕국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 사실은 한 국가로써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런 목적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32-33을 보라). 유대 나라는 그 자체로써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리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계획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같은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전체로써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어느 유대인 개개인을 위한 것이다. 그 계획은 새 이스라엘 즉 교회 내에서 그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감람나무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바울을 말한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롬 11:23-24).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6)고 바울은 말한다. 여기서 “그리하여”란 말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를 의미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다른 누구나 구원받고 교회에 더하시는 방법이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새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쫓**으로 유대인이 되는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할는지 모른다(롬 2:28-29, 10:9, 11:5).

## B. 모두를 위한 자비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차별 없이 오로지 복음을 제공함으로써만 교회의 본질에 진실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진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지 않은 한 몸으로 연합될 때에만 성취된다.

만약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그분의 교회도 반드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는 벽을 단번에 모든 시대를 위해서 헐어버리셨다(엡 2:14). 이 지금의 악한 시대에도 우리를 서로 분열시키는 다른 많은 종류의 벽들, 즉 인종차별주의, 교파교단주의, 사회적 속물근성, 정치와 이념 전쟁, 혐의와 질투 같은 벽들이 있다. 위대하신 벽 파괴자 그리스도께서 이것들도 또한 헐어버리실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 원칙에서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같은 벽들은 심령들의 죄로 인해서 세워지고 또 심령들이 변하지 않으면 헐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와 중생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자에게는 형제애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지역 회중은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의 빛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분열들도 없게”(고전 1:10) 하라. 인종편견, 속물적인 파벌들, 사회적 칸막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지기를! 달리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진실할 수 있겠는가!

## 제11장 자비: 실천의 은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관점으로)” - 결국 무슨 다른 관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과 책임들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것의 모든 깊이와 부요함 속에서 경험해왔다. 하나님 자신의 원수들이었던 우리, 불경스럽고 받을만한 자격이 없던 우리, 이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친애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무슨 자비인가? 이 무슨 은혜인가?

우리가 화목 되었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우리는 화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항상 자비로워야 한다.

바뀌서 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자비의 바로 그 본질과 성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이셨던 바로 그 태도들은 우리가 우리의 동료 인간을 향해서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들이다.

화목한 삶은 *자비*라는 특징에 의해서 가장 잘 예시되어질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어떻게 우리는 자비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온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가 이

장(章)에서 해답을 찾으려하는 물음들이다.

## 1. 불행에 자극받는 자비

동정은 자비의 한 형식이다. 많은 수의 병원들이 병들어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심을 암시하는 “자애 병원”이란 이름으로 지어진다. 자애는 자비의 또 다른 통로이다. 그래서 거지가 소리친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만약 배심원이 자비를 권하면, 범법자들에게 관대히 대할는지 모른다.

우리가 자비란 말을 사용하는 방법의 이 사례들은 자비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비하다는 것은 불행에 자극받는 것이다(*To be merciful is to be moved by misery*).

세상에는 불행이 많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풀 기회는 항상 있다. 가난한 자들, 주린 자들,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중독자들과 억압당한 자들은 육체적 불행을 겪는다. 영적 불행은 심지어 더 넘쳐난다. 대다수는 죄의식과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다. 그들은 고독감, 공허감, 의미상실감에 빠져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분 주변의 불행에 자극받으셨던 것처럼(마 9:36, 14:14), 이 불행에 반드시 동정심으로 자극받아야 한다. 자비와 무관심은 양립할 수 없다.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아가페)은 관심, 동정, 돌봄으로 가장 정확히 정의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롬 12:9)고 바울은 말한다. 만약 불행에 대한 자각이 우리를 내적인 아픔과 동정적인 고통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에 거짓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에게 불행을 줄이고자하는 감동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에 거짓이 없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하여 정말 인정 많은 사람이 되도록 반드시 힘써야 한다. 우리는 눈물이 날 지경까지 반드시 참으로 돌봐야 한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반드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롬 12:15)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불행에 자극받아야 한다.

이것이 자비이며, 그 같은 자비는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시킨 것이다. 그것이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기독교가 세상을 뒤집어놓기 전에는 자비가 실제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자비를 실행하는 오늘날의 기관들은, 비록 세속화되었을지라도, 자비에 관해 가르친 기독교의 산물이다.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온갖 종류의 불행에 자극받는다. 오늘의 사회 활동가들은 육체적 사회적 불행에 편향적으로 집중하는 결점이 있다. 그들은 보통 영적인 욕구와 불행을 무시하는데, 그것들은 다른 불행의 근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중요하다.

다른 한편,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방성에 결점이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영적 고난에 집중한 나머지 육체적 불행을 겪는 우리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교회가 남겨놓은 공백을 사회 활동가들이 그냥 붙들고 있게 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자비로워야 할 우리의 의무를 반드시 거듭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자선이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롬 12:13). 그러나 자비는 교회의 경계들 너머에까지 미친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롬 12:20).

지역의 회중은 교회 안팎의 모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불행을 줄일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담, 의술, 간호, 목회, 사회복지와 같은 자비의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불행이 가장 심각하며,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첫 번째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도록 죄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자비이다.

## 2. 용서가 자유로운 자비

자비의 가장 예리한 형식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누군가에게 동정과 친절을 베푸는 용서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보복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옆으로 치워버릴 수 있고, 가해자를 진실로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계명을 갖고 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 12:14). 우리가 죄지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원찮게 할 수 있는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그리스도인은 “눈에는 눈으로”의 원칙으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정의의 원칙이다. 또 그것은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정들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마 5:39).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7,19).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수를 갚으시는 한 가지 방법은 행정 당국자들을 통해서이다. 로마서 13:1-4를 보라.)

우리는 어떤 악의를 품어서도 안 되고, 어떤 복수를 노려서도 안 되며, 우리는 “공평하려”해서도 안 되고, 가해자가 부당하게 고통 겪는 것을 보려 해서도 안 된다.

한 가지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오직 자비로운 것들만이 자비를 얻게 될 것이란 점이다. 말하자면,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준 다음에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마

6:12).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야고보는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약 2:13)는 것을 말한다. 자비심이 없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마 18:21-35)는 이 점을 냉정하리만치 명확히 한다.

이것이 너무 거슬리는 듯싶은가? 이것이 바로 그 은혜와 자비의 원칙에 위배되는 듯싶은가? 그렇지 않다.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비와 용서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볼 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가장 지독한 모욕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바로 그 본질에 매우 반대되는 것이어서 만약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다.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고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취지를 총체적으로 놓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리에게 언젠가 말했다. “저는 결코 용서 못합니다.” 웨슬리가 대답하기를 “그러시면, 저는 선생님께서 결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비의 궁극적인 시금석은 당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데 항상 자유롭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당신은 자비로운가? 아니면, 당신의 정신이 아직도 보복과 복수의 속박으로 올라미를 썼거나 수의를 입었는가? 당신은 당신을 모욕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에게 항상 대갚음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당신의 정신이 이 예속하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운가? 당신은 용서하는 것에 자유로운가?

자비로운 자들은 진실로 복을 받는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잠 11:17).

### 3. 공의를 넘어서는 너그러운 자비

자비로운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대가를 받은 거야. 자기가 저지른 일이야. 받을 것을 받은 거지. 공평할 뿐이야.”라고 외치는 누군가를 본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는지 모른다. 우리는 알코올중독자에게 혹은 미혼임신부에게 혹은 마약중독자에게 닦하고 있는지 모른다.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우리에게 못되게 하는가, 또 얼마나 자주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우하기를 주저하는가?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십중팔구 그럴 자격이 없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대개의 우리는 매우 민감한 정의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공정한지를 알고 있다. 이것이 왜 연재만화들, 연속극들, 서부영화들 혹은 심지어 TV의 레슬링 중계에 빠지기가 그토록 쉬운지에 대한 한 가지 이유이다. 이것들은 보통 악역들을 등장시키고, 우리는 악당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을 당하는 것” 보기를 원한다.

우리의 정의감은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권리들”이 침해를 받았을 때 가장 강하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들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위반자가 지불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공격하고, 그에게 굴욕을 주며 또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게 당연한 거다. (“Turnabout is fair play.” It is only *just*.)

그것은 사실이다. 금단증상의 고통을 겪는 것은 “중독자에게 당연한 것일는지” 모른다. 사실이다. 그가 그것을 저질렀으며, 당할 만하다. 사실이다. 불한당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사실이다. 대갚음은 공정한 플레이이다(Turnabout is fair play).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오로지 공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도대체

누가 말했는가? 사람들이 받을 만한대로만 우리가 그들을 대우하기로 되어 있다고 도대체 누가 말했는가?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공정한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정의를 뛰어넘어 관대해야 한다. 이것이 자비이다. 이것이 실천의 은혜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들을 계속해서 주장할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분명히 그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 -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모든 것이다. 그것이 자비가 무엇인가이다. “대값은 공정한 플레이이다.” 그러나 친절과 용서는 *자비*로운 방법이며,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다.

#### 4. 하나님에 이끌린 자비

우리의 질문은 이제 “어떻게?”라고 묻는 것뿐이다. 어떻게 우리는 이 자비로움의 경향이나 태도를 성취할 수 있는가? 그것이 거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진실로 자비로움은 죄인의 능력을 초월한다. 우리는 이 목표를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할 때만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모범을 따를 때에만 자비로울 수 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눅 6:36)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공홀이 풍성하신”(엡 2:4)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실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하게 하거나 심지어 우리를 위해 자비를 정의하게 해서 안 된다. 규범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규범은 진실로 고상한 것이요,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써가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써 자비롭기를 배울 수 있다(엡 3:16, 빌 2:13).

하나님께 화목 된 자들이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하고, 원수들까지도 자비롭게 하며, 화목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지를 불신 세계에 보이게 하라.

## 제12장 돌을 던지지 말라

“교리 설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무언가를 설교해 주세요.” 모든 설교가가 종종 이 선의의 제안을 받는다. 본서의 여러 장(章)들도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리적 측면에서 너무 버겁다는 비판을 받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은 교리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리는 가르침, 즉 진리로 가르쳐진 것과 믿어진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리로 믿는 것은 그가 하는 다른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바른 교리는 그래서 바른 행동에 선행조건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행 2:42). 성경말씀의 첫 번째 가치가 그것의 교리인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딤후 3:16).

본서에 실린 일련의 연구들을 위해 기초를 형성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관한 책들은 이것의 훌륭한 본보기들이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교리서적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은 매우 실제적이다. 그것들의 초점, 즉 믿음으로 의롭다하심(以信稱義)의 교리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측면과 우리의 상호관계의 모든 것을 위해 필요한 기초를 놓는다.

따라서 로마서가 특히 후반부 장(章)들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무슨 다른 반응이 가능하겠는가? 은혜는 동기를 부여하는 다른 모든 요소들을 쓸모없게 만든다.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걸을 것이다.

이 장(章)에서 우리는 로마서에 언급된 이웃 사랑의 몇 가지

측면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 1. 사랑은 어떤 해도 미치지 않는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진술에서 발견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롬 13:10). 만약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결코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아프거나 해를 입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옛말이 있다. 물론 요점은 아무도 그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를 정말로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아이러니들 때문에, 고의성은 없지만, 우리의 행동들은 종종 사랑한 사람을 아프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은 그 같은 해(害)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것이 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계명들은 결국 보편적인 사랑의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일 뿐이다. 만약 사람이 그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는 이웃의 것을 흠침으로써, 이웃에게 거짓말함으로써 혹은 이웃을 살해함으로써 그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계명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 사람이 그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그는 사랑의 법을 이행하는 데에까지 와있는 것이다(롬 13:8-10을 보라).

### A. 악함 혹은 강함?

이 원리들의 구체적인 적용은 로마서 14장에서 발견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형제에게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를 해(害)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롬 14:13). 심지어 당신이 본질적으로 전혀 해롭지 아니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

도, 만약 당신의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믿지만, 당신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롬 14:15).

여기서 다뤄져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이 아닌 것들이나 행동들, 그리고 그 같은 것들에의 약하고 강한 접근들이다.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적절한 이해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해롭지 아니한 어떤 행동이 꽤 죄가 된다고 느끼는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그것은 자기의 양심에 어긋난 것일 테고, 또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될 테니까 말이다(롬 14:14,23, 고전 8:7).

그러나 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가 해롭지 아니한 때를 알고, 또 그러므로 죄 짓지 않고 그것을 착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이 직접적으로나 함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신약성경의 글들에서 그 같은 행동의 주된 본보기는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다. 고대의 정육점들에서 생육(生肉)의 주된 공급처는 지역의 이교 신전이였다. 동물들은 여러 우상들의 희생물로써 도살될 것이고, 그러면 일상의 소비를 위해 시장들에서 팔려나가게 될 것이었다.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같은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에 관해서 일치할 수 없었다. 먹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람들은 혹 그들의 심령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떠한 고기도 전혀 먹지 않는 것을 선호하였다.

바울은 그 같은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해롭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전 8:4-6, 10:25-27). 믿음이 강한 자는 이것을 안다. 죄는 우상에게 동물을 바치는 자들에 의해서 초래되지, 고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먹는 자들에 의해서 초래되지 않는다.

## B. 자유 혹은 사랑?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끝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또 덕을 세우는(건설적인)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한다(고전 10:23). 비록 내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자유로울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보다 더 약한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할는지 모른다. 만약 그가 내가 그 같은 고기를 먹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그것을 즐기게 된다면,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고전 8:9-12).

답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답은 매우 간단하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랑에 반(反)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그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이다. 사랑은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바울은 말한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롬 14:15).

바울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롬 14:21, 고전 8:13을 보라)고 말한다. 자유의 법은 사랑의 법으로 길을 튼다.

이 원칙은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든지 반드시 부지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카드놀이나 당구 혹은 영화 보러가거나 주일 오후에 일하는 것에 관련이 있을는지 모른다. 어떤 정해진 장르의 음악을 듣거나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들이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에 관련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유들(우리의 “권리들”)보다, 그것들을 행사함으로써 더 약한 형제를 죄에 빠뜨린다면, 기꺼이 앞서 가려해야 한다.

### C. 판단 혹은 수용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경우라면, 말하자면, 그들이 이 일들을 실제로 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고 그들의 마음에 죄를 범하는 경우라면, 그 같은 행동들을 실제로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자. 무언가를 형제가 단순히 좋아하지 않거나 그것을 찬성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절당한다는 점에서 그를 단순히 “불쾌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우리는 포기할 필요까지 없다. (여기 약간의 혼란이 있다. 왜냐하면, 더 오래된 번역이 *불쾌하게 만드는 (offend)*이란 말, 즉 초기에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이란 뜻을 실제로 의미했던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노선을 따라서 바울은, 만일 그 같은 견해의 문제들에 대해서 형제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개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을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다. (로마서 14:1-13을 보라).

그 같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지도적 원리는 여전히 이것이다. 사랑은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 2.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단지 만족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추구한다.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롬 14:19).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롬 15:2).

만약 우리가 성경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삶들이 깨지기 쉽고 부자연스런 “더 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안다면, 그들과 함께 연구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에 대한 적절한 지식으로 그들을 격려하자. 만약 우리에게 죄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약한 형제들이 있다면, 어떤 가능한 방법으로든 우리 자신들을 드러 섬김이 되게 하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한다”(롬 15:1).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은사를 이용해야 한다. 바울은 우리들 개개인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 상호 의존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회를 한 몸에 비교한다(로마서 12:4-5을 보라).

로마서 12장 6-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신령한 은사들은 발휘될 때 주(主)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세울 은사들이다. 어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주(主)께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모두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의 심령들을 부유케 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대단함은 떨어지지만, 가르치고 이끌고 격려하는 것과 같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은사들을 갖는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인정이 많아서 가장 필요한 때 자비와 동정을 베풀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드물게 세속적인 재물의 복을 받고 베푸는 은사를 가질는지 모른다. 목회사역의 훈련과 전 세계적인 복음전도와 같은 일들을 후원함으로써 그들은 지극히 중요한 목회사역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전신(全身)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 3.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첫 번째에 놓는다.

사랑은 사람이 자기 자신 위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과 소원들을 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의 정점에 이른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당신 자신을 위하는 것만큼 당신의 이웃을 위해 동일한 종류의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동일한 양(量)만큼의 사랑을 가져야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그분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의 바로 그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이다(요 15:13).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요구한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고기 먹는 것이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전 8:13).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는가?

만약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첫 번째에 두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롬 12:10).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롬 15:1-3).

요한의 말씀들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고 하였다. 어떤 해(害)도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우며, 다른 사람들을 첫 번째에 돕으로써 사랑 안에서 걷자.



## 제13장 빛을 졌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빛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매우 잘 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다른 한 사람에게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 가장 일반적으로 빛은 경제적인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종류의 빛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 빛, 즉 도덕적 의무라 부를는지 모른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한 행위로 호의를 베푼다면,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감사의 빛을 졌노라고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는 사회에 그의 빛을 갚기 위해서 감옥에 간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지킬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부모들은 도덕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후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녀들은 도덕적으로 그들의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빛진 자들”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 즉 도덕적 의무감에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와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 모두 빛진 자들이다.

이 사실은 빛지는 것을 다뤄야 하는 신약성경의 잦은 단어들의 사용에 의해서 강조된다. 첫째는 “빛, 책임, 의무”를 의미하는 명사 *오페이레*(*opheile*)가 있다. 둘째는 “빛진 자, 즉 일정한 책임 아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 *오페이레테스*(*opheiletēs*)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책임아래 있는 것, 빛을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오페이레인*(*opheilein*)를 갖는다. 가장 빈번하게 이 마지막 단어는 “해야만 하다”(ought)로 번역된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들 단어들의 사용에 세밀히 주목함으로써

써 우리가 세 가지 다른 면들에서 즉 피조물들로서, 죄인들로서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빛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될 것이다.

## 1. 우리 피조물들은 빛진 자들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진 빛은 순종의 빛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빛을 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적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진실하다. 시편 24편 1-2절은 노래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KJV).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란 것을 듣는다. 땅과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굴복해야 할 빛을 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그분의 계명들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할 빛을 지고 있다.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신다 (눅 17:7-10). 여기서 그분은, 설사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행한다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특별한 인정이나 보상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 그런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이다(10절).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오페이레인*(*ophelein*)으로써 문자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갚아야 할 일을 행한 것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완전하게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빛을 그분께 갚는다.

## 2. 우리 죄인들은 빛진 자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순종의 빛을 갚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경우 우리는 우리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계좌에 또 다른 빛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피조물들로서 우리의 원래의 빛에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죄는 우리를 *다른 종류의 빛 아래에* 놓는다. 우리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자가 그의 “사회에 진 빛”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죄인도 거룩하신 율법수여자에게 그가 진 빛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벌(永罰)의 빛을 지고 있다.

성경은 일종의 채무로서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모범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사(赦)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빛들을 사(赦)하여 주옵소서”(마 6:12)라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빛들*이란 말을 사용하신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3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사고로 죽은 열여덟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들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KJV). *죄인들*로 번역된 말은 여기서 문자적으로 *빛진 자들*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빛지고 있는 죄인들만큼 우리의 곤궁한 상태를 기술하는 두 개의 비유들을 말씀하신다. 하나는 용서받은 빛진 자들에 대한 비유이고(눅 7:41-42), 다른 것은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이다(마 18:21-35). 후자의 비유는 죄인이 그가 지고 있는 모든 빛을 반드시 청산해야 하며(34절), 그가 빛지고 있는

것은 지옥의 영벌이라는 것을 특별히 보여준다.

구제의 가망이 거의 없이 깊이 빚지고 있는 것보다 몇 가지 것들이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빚진 자들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상환금을 빼내어 가실**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하는가이다. 어떤 좌절감도 죄의 빚을 수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복음이 진실로 좋은 소식이 되는 곳이 여기다. 갈보리의 소리는 희망이 없는 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지불하셨다!”고 외친다. 복음의 최초요 첫 번째 논거는 바로 이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전 15:1-3)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특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들을 위해서 징계를 받고 계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징계의 빚을 지불하셨다.

이것이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본 측면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구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값을 지불함으로써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빚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마 20:28)이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딤후 2:5-6). 바울은 또한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갈 3:13). 작사자가 그것을 말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는 나의 용서를 인봉하셨네. - 빚을 갚으시고 나를 해방하셨네.”

우리가 피조물들로서 갖는 순종의 빛과 죄인들로서 갖는 형벌의 빛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빚을 갚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순종의 의무를 다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죄이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형벌의 빛에 관해서는 경우가 다르다. 그것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할 빛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갖는 가장 복된 선택인 한 선택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의 빛을 갚기로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갚도록 선택할 수 있다. 진실로 예수님은 갈보리의 은행에 충분한 몸값을 이미 예치해놓으셨다. 우리가 침례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의 계좌에 충당된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고 완전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빛들을 사(赦)하여 주옵소서”(마 6:12)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3.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진 자들이다.

찬송들 가운데 한 장은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불하셨네. 내가 그분에게 진 모든 것을”이라고 노래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는가? 그분은 우리가 진 형벌의 빛을 지불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의무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빛, 즉 사랑과 감사의 빛을 진다. 참으로 “내가 그분에게 진 모든 것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면, 우리는 그분이 걸었던 대로 걷는 것을 예수님께 빚지고 있다. 요한일서 2장 6절은 말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걸으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걸어야할지니라)”(KJV). 여기서 사용된 *할지니라*는 *오페이레인(ophelein)*이다. 우리는 그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빛을 지고 있다.

로마서 8장 12절(KJV)은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말한다. 함축된 대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14절)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빛진 자들이란 것이다.

우리가 더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성장해야 할 우리의 의무가 더 크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할 빛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테면, 피조물들로서 우리가 행할 동일한 의무를 하나님께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그분의 계명들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빛을 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종류의 빛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피조물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다(고후 5:17). 이제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냥 창조뿐만 아니라, 또한 구속(救贖)이다.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한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를 섬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에 비취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보다 못할 수 있겠는가? “아, 은혜에 날이면 날마다 나는 부득불 얼마나 큰 빛진 자인가!”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선행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되갚아 드리는” 일종의 방법으로 생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형벌의 빛을 지불하신 분에게 “감사 합니다”라고 말하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다. 은혜 아래서 순종의 빛은 감사의 빛이 된다.

은혜 아래서 빛진 자들로서 우리의 신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 빛진 자들이다. 우리의 구세주께 드리는 사랑의 감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의무들을 수행

하도록 한다.

이 원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은 역시 *오페이레인(ophelein)*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빛진 자들이다. 로마서 13장 8절은 명확히 권면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무슨 특별한 방법들로 우리가 서로에게 진 우리의 빛을 갚을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거나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믿음이 강한(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1). 돕기 위해서 손을 (또는 기댈 팔을 혹은 훌쩍거릴 어깨를) 내미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빛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은 심지어 그분의 피가 갈보리에서 우리의 형벌의 빛을 씻어버리시기 전에 우리들을 이 의무 아래에 놓으셨다. 그분이 십자가의 수난을 겪기 전날 밤에 2층 방에서 그분은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분의 겸손한 섬김의 본을 세우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그리스도인이 지고 있는 가장 압박하는 빛들의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진 그의 빛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매우 후하게 행하셨고, 또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그분께 되갚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분의 대사들로서 행하도록 또 그분의 화해를 선포하도록 하게 할 것을 정말 기대하신다(고후 5:14-20).

이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지방에서 지방으로 몰고 간 빛이다. 그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롬 1:14-15, KJV)고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다.

당신이 변호사로서 당신의 먼 친척의 한 사람이 죽었고, 당신과 당신의 형제자매들에게 각각 백만 불씩 유산으로 남겼다는 전갈을 받았다고 치자, 당신은 당신만 기뻐할 뿐 아니라, 당신의 형제자매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알려야 할 도덕적 의무감을 갖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즐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돌아가셨는가를 말해야 할 빛진 자들이다.

대개의 우리들은 은행에 혹은 백화점에 혹은 의사에게 빛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면 상당히 책임적이 된다. 우리는 그 같은 의무들을 피하려고 심각하게 숙고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들을 심각하게 받아드릴 시기이다. 어쨌든 이것들은 우리가 갚아야 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빛들이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갚아야 할 감사의 빛들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KJV)는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유념 하길 바란다. <본 13장은 *Standard Lesson Commentary*, 1974-75, 119-120쪽을 허락을 받아 재사용한 것임.>